15일 Market Index
코스피 8545.98 (+422.36)
코스닥 1034.03 (+4.98)
금리(국고채 3년) 3.744 (-0.064)
환율(원·달러) 1515.15 (-4.65)

metro® 경제

LG전자 에어컨 60년 노하우 AIDC 냉각 04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美-이란 전쟁, 106일 만에 마침표… 19일 합의문 서명

국제경제 급속 정상화

트럼프 "호르무즈 개방, 해군 봉쇄 즉각해제 승인"
파키스탄 "모든 군사작전 즉각·영구적 종료 선언"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이란 공습으로 발발해 전 세계를 극도의 경제적·군사적 위기로 몰아넣었던 '미국·이란 전쟁'이 106일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 정부는 군사 작전의 영구적 종료와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전면 개방을 골자로 하는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을 선언했다.

글로벌 물류망을 마비시키고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부추겼던 중동발 혈로가 뚫리면서, 전쟁 충격에 신음하던 국제 경제도 급속한 정상화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2·3면〉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란 양측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했다"며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적인 종전 합의문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합의 발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종전 사실을 강력히 시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면 승인하며, 동시에 미국 해군의 봉쇄 즉각 해제를 승인한다"라며 "전 세계의 선박들이여, 엔진을 켜라. 석유가 흐르게 하라"고 선언했다. 이어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이것이 길고 아름다운 평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망치지 말자"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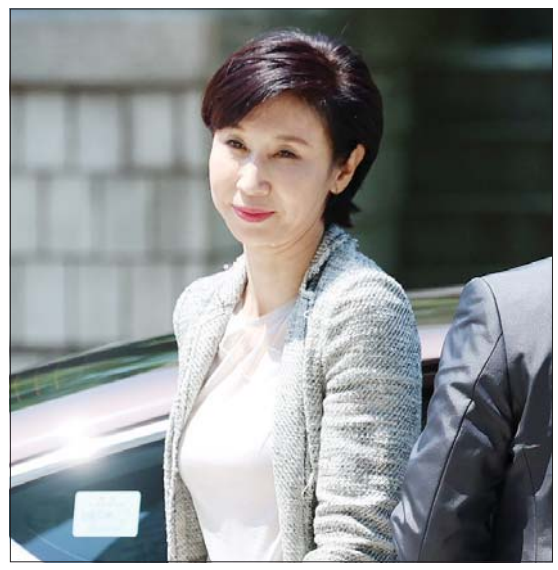
이란 외무부가 공개한 14개 항의 종전 MOU 초안에 따르면,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제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기로 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군 추가 배치와 신규 제재 부과를 중단한다. 특히 양측은 핵 문제 관련 최종 협상 전 단계 조치로써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약 36조 원 규모)의 절반을 우선 해제하고, 이란에 대한 석유 제재 유예 및 해상 봉쇄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본협상의 의제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미·일·유럽의 이란 제재 완화, 이란 경제 재건 계획 등 3가지로 제한된다.

이번 합의는 발표 당일 아침까지도 이스라엘의 돌발적인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으로 이란이 협상 중단을 경고하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었으나, 확전을 경계한 미·이란 수뇌부의 강력한 마무리의지로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

미·이란의 종전 선언으로 글로벌 금융시장과 원자재 시장은 즉각 요동쳤다. 합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제 유가는 급락세로 돌아섰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가라앉으면서 국제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 가치는 10일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3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최태원·노소영, 26일 재산분할 변론 재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을 마친 직후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정식 변론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 /뉴시스

社告

메트로경제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

글로벌 먹거리 된 'K-푸드'

메트로경제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K-food, 세계인의 먹거리'라는 주제로 오는 6월 17일(수)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제 'K-푸드'는 전 세계인의 일상을 파고들며 글로벌 식문화의 새로운 주류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고유의 맛과 건강한 식문화를 담은 K-푸드는 전 세계 유수의 마켓과 식탁을 점령하며,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을 넘어 전 세계가 매일 즐기는 '세계인의 먹거리'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의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대표 식품 기업들의 발자취와 성공 전략을 조망하는 푸드이노베이션 포럼을 준비합니다. 이번 포럼은 풀무원, 대상 등 글로벌 무대에서 K-푸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기업들의 생생한 현장 스토리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식품산업이 마주한 다음 단계의 도약과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독창적인 제품 개발 스토리부터 한국 식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계화에 성공한 비결까지, K-푸드의 진정한 매력과 가치를 묻는 다채로운 강연이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K-푸드가 지속 가능한 글로벌 트렌드로 이어지기 위한 방향성을 진단하고, 동반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될 계획입니다.

■ 주 제 : K-food, 세계인의 먹거리
■ 일 시 : 2026년 6월17일(수) 14:00~17: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 의 : 푸드이노베이션포럼 사무국 02)721-9818
■ 참가비 : 사전 등록시 무료
■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metro®

세계 금융시장 '환호'… 코스피 8500 날았다

중동전쟁 사실상 종지부
33만 전자, 220만 닉스 올라
코스피 5.20% 오른 8545.98

106일간 이어지며 세계 경제를 짓눌렀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14일 종지부를 찍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제히 환호했다. 코스피는 8500선을 다시 뚫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33만 전자' '220만 닉스' 고지에 나란히 올랐다. 다만 지수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한 우려와 반도체 쏠림에 대한 경고음도 함께 커졌다.

15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5.20% 오른 8545.9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에는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올해 14번째 매수 사이드카다.

코스피는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가 완료됐다"고 선언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를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급등했다. 삼성전자는 4.50% 오른 33만7000원에, SK하이닉스는 6.42% 오른 228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은 이틀 연속 '사자'에 나서면서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원가량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1조4900억원어치를 팔아치웠고 기관은 540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해외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주요국의 증시도 급등했다. 일본 니케이225가 4.99% 급등한 것을 비롯해 대만(2.78%)·호주(1.25%) 등 아시아 증시가 동반 상승했다.

글로벌 자산 시장도 장밋빛으로 물들었다. 글로벌 물류의 핵심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재개 소식에 국제 유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인베스팅닷컴 등에 따르면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83달러 선으로 4.6% 가량 떨어졌고, 서부텍사스유(WTI) 선물 가격 역시 5% 이상 하락하며 80달러대로 내려왔다.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며 비트코인 또한 6만5000달러 선을 재돌파하는 등 자본시장 전반에 온기가 돌았다.

다만 증권가에선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당분간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지난 9일 91.23으로 고점을 찍은 뒤 87선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현재 변동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다음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일본은행(BOJ) 등 주요 통화 정책회의가 변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7원 내린 1511.1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李 "부정선거 음모론, 본질 왜곡"

유럽서 화상 수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14일(현지시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선거 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연 건 역대 처음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국내 상황이 엄중하자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주말에도 화상으로 참모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변명의 여지 없이 선관위의 투표 부실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첨단산업, K-컬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메트로 한줄뉴스

▲李대통령, 잠실 봉쇄에 "시위대 행패 경찰에 엄중수사 지시"
▲장동혁, 李대통령 향해 "재선거·특검 입장 밝혀라"
/사진 뉴시스

▲곽상언 "유시민 홍보 채널 같아" 직격…유시민 "당분간 재단 떠난다"
▲법사위원장 놓고 충돌…與 "우리가 맡아야"·野 "포기하라"

▲시도지사 당선인 불러모은 金총리… 7명은 불참
▲민주당 지지율 역전한 국힘…대여투쟁 수위도 높힌다

19일 호르무즈 개방… 유가 안정에 韓 산업계 한숨 돌리나

美-이란, 19일 종전 MOU

브렌트유 84달러 등 국제유가 안정
정유업계 "호르무즈 정상화 돼도 나라별 협의해야 원유 안정적 운송"
자동차·전기전자 등 제조업계 "원가부담 완화, 수익성 개선 기대"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미국과 이란이 사실상의 종전 합의로 한국 경제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100일 넘게 이어진 전쟁으로 우리 경제를 압박해 온 공급망 문제와 한 때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나들던 국제 유가도 진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쟁으로 훼손된 현지 원유 생산시설 복구와 공급망 정상화까지는 상당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 2월 28일부터 진행된 이란 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된다. 양국은 즉각 전투행위를 중단하고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도 즉각 해제하기로 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당일 MOU 서명에 맞춰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은 유가시장이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 서명 계획을 밝힌 15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84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81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다만 시장 가격 안정과 실물 공급망 복구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유 업계 관계자는 "양국이 MOU를 체결해도 자금 제재 해제나 후속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한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실질적으로 정상화되더라고 각국 관계자들과의 세부 협의가 마무리돼야 실제 원유 운송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원유 수급 불안 해소에 따른 공장 가동 정상화로 수급 불안이 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와 전기전자 등 한국 제조업계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공급망 회복 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부품 수급과 원자재 공급 완화로 플라스틱 등의 원가 부담이 줄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중동 국가에 진출한 기업들의 판매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국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 기아는 중동 현지 판매실적이 판토막 났다. 기아는 3~4월 중동 지역 판매량이 각 8100대, 8200대 수준으로 2월 한달간 판매량(1만6819대)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오는 8월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양산을 통한 중동 시장 공략에 나서는 KG모빌리티도 공장 시험 가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방침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전쟁 장기화로 환율 물류비 등 현지 소비 심리 위축 및 불확실성이 이어졌다"며 "중동 현지 소비는 물론 환율 안정화로 글로벌 소비 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국내 해운업계는 이번 합의가 실제 이행될 경우 중동 항로 운항 부담 감소를 기대하면서도 단기간에 통항이 완전히 정상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은 한국 선박은 24척이며 한국인 선원은 모두 139명이다. 호르무즈에 발이 묶여 있는 국내 선박들은 통항이 재개될 경우에 대비해 식량, 선박유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합의문 서명 전까지 정치적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이 수천 천에 육박하며 해협 내 기뢰 제거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빠져나오는데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보험료 부담도 변수다. 해상 분쟁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에는 통상 전쟁위험 보험료가 추가도 붙는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종전 합의가 실제 서명되고 해협 안전이 확인되면 선박 운항 정상화에는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 크다"면서도 "기뢰 제거와 보험료 조정, 각국의 안전 보장 조치가 뒤따라야 선사들이 본격적으로 운항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구남영·원관희 기자
ysw@metroseoul.co.kr

트럼프 "서명식 후 기뢰제거" 정부, 韓 선박 안전귀가 방점

종전 합의 이후 핵 폐기 등 과정 남아
호르무즈 완전 정상화 시간 걸릴 듯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양측의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 후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더라도 위험 요소가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협 내 우리 선박이 안전하게 나오는 데 외교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직전 종전이 타결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 제거를 위한 파병 요청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과 종전 협상을 위한 MOU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공식적인 종전 협정 서명을 위한 사전조치 성격으로, 이란과 미국은 MOU 체결에 합의하며 당장 상호 적대적 행동을 멈추기로 했다. 이란 측도 종전 MOU 서명식이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석유는 전 세계를 위해 다시 흐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협상이 타결됐다고 해서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종전 합의 이후로도 양측의 핵 폐기-제재 해제 관련 추가 협상 과정에서 이란 내 과격 세력 등에 의한 민간 선박 공격이 재발하거나,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가 남아 있어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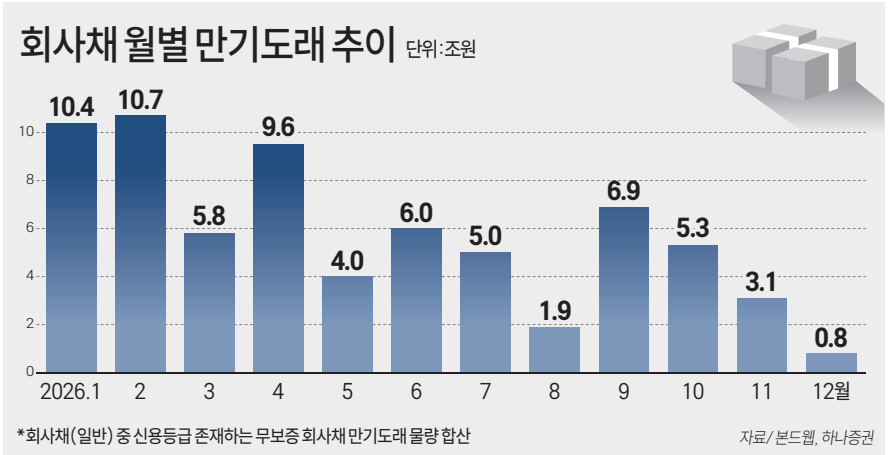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엔 우리 선박 24척이 머무르고 있다. 지난 2월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라, 26척이 갇혀 있었는데, 두 대가 이란 당국과의 협의로 빠진 상태다. 한국 선박들은 해수부 안내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한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다.

다만 곧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문제와 관련해 해군 전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우리도 소해함 등 해군 전력을 보내야 할 순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파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난항에 빠질 경우 교전에 휘말릴 우려가 나온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금리 상승기’ 올해 회사채 만기 46조… 기업 자금조달 ‘비상’

발행 위축 속 순상환 기조 지속
저신용사 중심 차환 부담 가중
기관 수요 줄며 투자심리 냉각
BBB급 수익률 10%대 진입
취약업종 중심 유동성 우려



유럽 등 주요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면서 기업들의 자금 시장에 비상등이 켜졌다. 연말까지 기업들이 갚아야 할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이 46조원에 달하는데,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채권값 하락 우려에 큰손(기관투자자)도 등을 돌리고 있어서다. 자금 조달 길이 막힌 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치솟는 금리에 기업들 부담도 늘어

15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신용등급 AA-급 우량기업의 3년 만기 회사채 평균 금리는 이날 기준 연 4.373%로 마감했다. 지난해 말(연 3.476%)과 비교하면 다섯 달 반 만에 0.897%포인트 뛰었다. 특히 지난 8일에는 연 4.565%까지 치솟으며 5% 선에 다다랐다.

투자 가능한 채권 중 신용등급이 낮은 BBB-등급 금리(3년물)는 지난달 10% 선을 뚫었다. 지난해 말 연 9.312%였던 BBB-등급 금리는 이날 기준 연 10.197%로 올랐다. 올해 최고치는 연 10.371%(6월8일)이다.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인 회사채 발행 금리는 지표 금리인 국고채 금리에 개별 기업의 신용 위험(신용등급)을 반영해 결정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채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신용등급이 더 낮을수록 더 많은 돈을 주고 회사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회사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불쏘시개는 국고채 금리다. 중동전쟁으로 불붙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 속도를 높이면서 전 세계의 국고채 금리가 튀어 오르고 있다.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도 다시 긴축 기조로 돌아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내릴 거란 기대감도 빠르게 후퇴했다. JP모건은 “매우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 여러 다양한 통화정책 준칙을 평균 내어 산출한 적정 연방기금금리(기준금리) 범위는 4.0~4.85%로 나타난다”며 “이는 현재의 금리 범위인 3.5~3.75%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JP모건은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5%를 넘어선 적이 없었으나, 최근 그 임곗값을 돌파했다”고 지적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등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잇따라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한국 기준금리의 7·8월 연속 인상뿐 아니라 한은이 한 번에 0.50%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산업연구원의 ‘기준금리 상승이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정책 변화로 금리가 1% 오르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0.64%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기업의 대출금리는 0.57% 올랐다. 장기적으로 가산금리 역시 중소기업이 1.69%로 대기업(1.17%)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 인상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빚 내서 빚 갚기 급급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회사채(ELS·DLS 제외) 만기 도래액은 46조1000억원이다. 상반기(72조7000억원)보다 30조원 가량 적지만 고금리 상황에서 적잖은 부담이다. 특히 신용등급 ‘AA-’ 미만 기업의 하반기 만기 도래액은 10조3000억원에 달한다.

갚아야 할 돈은 많은데 뛰는 금리에 회사채 시장은 얼어붙었다. 지난 15일 기준 올해 들어 회사채 발행액은 62조2570억원(금융투자협회 자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8조9727억원)보다 6조7157억원 줄었다. 만기상환 금액을 뺀 순발행액(1조5835억원)은 같은 기간 92.17% 쪼그라들었다.

금융감독원 집계에서도 비슷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회사채 발행실적은 22조2021억원으로 2조6591억원(13.6%) 늘었다. 이중 일반회사채는 4조1740억원으로 6070억원(12.7%) 감소했다. 자금 용도로는 차환성 발행이 3조2820억원으로 비중 78.6%를 차지했다. 일반 회사채는 4월 중 3조4780억원 순상환됐고, 올해 들어 내내 발행보다 상환이 많은 순상환 기조를 유지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증권사의 회사채 발행 담당자는 “최근 회사채 조달 비용(금리)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회사채 발행을 미루는 기업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우량 회사채인 AA등급 이상이나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하면 발행 물량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의 채권 브로커(중개인)도 “기업 입장에선 높은 금리는 물론 낮은 투자 수요로 미매각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크다”며 “실제 상당수 기관투자자는 국고채 등 시장 금리가 뛰자(채권 가격 하락에 따른) 평가 손실을 우려해 (회사채)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얘기했다. 실제 국내 채권형 펀드에서 지난 6개월 동안 9조4186억원이 빠져나갔다.

A등급 이하에선 미매각의 쓴맛을 본 기업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동화기업(BB B+)은 지난달 4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나섰지만, 전량 미매각됐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자 S-Oil, 포스코인터내셔널, LS일렉트릭 등은 회사채 발행을 보류하거나 연기한 바 있다.

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은 20일 ‘2026 하반기 크레딧 전망’ 자료에서 “높아진 금리 레벨로 인해 회사채는 제한적인 발행 속에서 순상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석유화학 등 실적이 악화하고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업종은 회사채 발행 여건이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낮은 단기금리를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면서 기업들은 높은 회사채 조달 코스트를 단기자금 조달로 회피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올해 2번의 기준금리 인상(7월과 10월 인상 전망)과 내년 추가 인상 가능성으로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로 진입하면서 단기금리 상승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종전으로 공급망 숨통… 60일 불확실성 여전

›› 1면 ‘美-이란 전쟁… ’서 계속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종전으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되고 고유가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꺾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으로 물류비 폭등과 원자재 수급난을 겪어온 한국을 비롯한 주요 제조국가들의 시름도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침체 기로에 섰던 전 세계 거시경제 지표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빠르게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이번 합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60일 시한부 임시 휴전’ 성격을 띤 만큼 완벽한 종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서방 동맹국들과 이란과의 협상안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또 회의에 초청된 카타르, UAE(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 중동 지역 지도자들과도 연쇄 회담을 갖고 이란 사태의 사후 수습을 논의한다.

양국은 서명식 이후 8월까지 60일 이내에 본협상을 마쳐야 하는데,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 제한 기간’과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처리 방식’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해 향후 또 한 번의 진통도 예상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에어컨·모터 60년 노하우로 AIDC 냉각, 로봇 만든다

⑤ LG전자

LG전자

AI 데이터센터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차세대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LG전자가 60여 년간 축적한 가전 기술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LG전자는 에어컨·모터에서 다진 기술을 AI 데이터센터 냉각과 로봇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가전 중심이던 사업 구조도 AI 시대에 맞춰 빠르게 바뀌고 있다.

15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로봇과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을 양대 신성장 동력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섰다. 가전과 전장(자동차 부품)의 안정적 수익을 토대로 기술 내재화와 글로벌 협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2030년 전력소비 2배 늘어날 전망
데이터센터 전력, 대부분 냉각서 소모

LG U+ 데이터센터에 CDU 공급
직접 칩 냉각부터 액침냉각까지
지난해 칠러 수주 전년比 3배 늘어
연구개발 인력 100명 → 200명으로
내년 칠러 매출 1조 조기달성 전망

LG전자 홈로봇 'LG 클로이'. /LG전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9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피지컬 AI 선도기술개발 사업 착수보고회에서 피지컬 AI 로봇 LG전자 클로이드와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냉장고 식히던 기술로 데이터센터를 식힌다

AI 서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식히는 일은 데이터센터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이날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2030년 현재의 약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냉각에 쓰인다.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AI 서버가 확산되면서 발열이 급증한 결과, 냉각은 서버를 보호하는 부차적 설비가 아니라 데이터센터 운영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LG전자는 이 발열 문제를 60여 년간 축적한 공조 기술로 대응하고 있다. 에어컨·냉장고의 핵심인 열관리 기술과 모터·인버터 등 부품을 직접 만들어 온 점이 후발 주자들과의 차별점이다. 회사가 추산한 데이터센터 냉각기(칠러)의 접근 가능 시장은 2026년 16억달러에서 2030년 127억달러로 약 8배 커진다.

LG전자는 10년 이상 국내외 데이터센터에 냉각 솔루션을 공급하며 기술을 축적해 왔다. 최근에는 LG유플러스의 초대형 데이터센터 '평촌2센터'에 액체냉각 솔루션인 냉각수분배장치(CDU)를 공급했다. 냉각 방식도 칩에 직접 냉각수를 흘리는 직접 칩 냉각(DTC) 방식의 CDU부터, 기기를 특수 냉각액에 담그는 액침냉각까지 넓히고 있다. 액침냉각은 미국 GRC, SK엔무브와 공동 개발 중이다. 여기에 냉각 관리 소프트웨어와 전력 관리 시스템을 더한 토털 솔루션 구축도 추진한다.

냉각 기술의 무게중심도 옮겨가고 있다. 공기냉각에서 액체냉각으로, 다시 액침냉각으로 진화하는 흐름인데, 액침냉각 시장만 해도 2030년 178억달러 안팎까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시장조사기관들은 보고 있다. 북미가 글로벌 빅테크 본사와 GPU 수요가 몰린 최대 시장이다. LG전자가 북미 빅테크 공략에 힘을 싣는 이유다.

성과도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해 데이터센터향 칠러 수주는 전년 대비 3배로 늘었고, 북미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칠러 품질 인증(퀄테스트)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회사는 관련 연구개발 인력을 현재 100명 안팎에서 200명 수준으로 늘리고 평택에 자체 데이터센터 테스트베드를 구축했다. LG전자는 2027년 칠러 매출 1조원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로봇 움직임·주변 인식 센서 기술
모터·에어컨·세탁기 등서 역량 다져

액추에이터 전용 브랜드 '악시움'
글로벌 제조사의 핵심 공급사로

올해 상반기 로봇 '클로이드' 실증
2028년 가정용 상용화 기반 목표

◆ 모터 기술로 로봇 부품까지

냉각이 AI 인프라의 기반이라면 로봇은 LG전자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점찍은 분야다. 피지컬 AI 확산으로 로봇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2024년 전 세계 제조 현장에 새로 도입된 로봇은 54만대로 10년 전의 두 배를 넘어섰다.

LG전자의 강점은 로봇의 핵심 요소가 가전에서 다져온 기술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로봇의 움직임을 만드는 모터와 정밀 제어, 주변을 인식하는 센서 기술은 에어컨·세탁기·로봇청소기에서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역량이다.

LG전자는 이를 로봇 부품 사업으로 잇고 있다. 로봇 구동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전용 브랜드 '악시움(AXIUM)'으로 사업화해 올 상반기 초도 양산에 들어간다. 액추에이터는 로봇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으로 연 4500만대 규모의 가전용 모터 생산 역량을 그대로 이식한다는 전략이다. 완제품 판매를 넘어 글로벌 로봇 제조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핵심 공급사로 자리잡겠다는 구상이다.

완제품에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LG전자는 휴머노이드 로봇 '클로이드'를 올 상반기부터 산업용·가정용 영역에서 실증(PoC)에 투입하고, 2028년 가정용 로봇 상용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내·배송 로봇을 호텔·공항 등에 공급하며 쌓은 자율주행·인식 기술과 상업용 서비스 로봇 자회사 베어로보틱스의 역량도 더한다. 로봇 소프트웨어 고도화에는 엔비디아의 '아이작'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 가전 DNA의 확장

이러한 신사업 확장의 토대는 견조한 본업 실적이다. LG전자의 1분기 매출은 23조7272억원, 영업이익은 1조673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4.3%, 32.9% 늘었다. 매출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이며, 생활가전(HS)과 전장(VS) 사업본부의 합산 매출이 분기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전장은 수주잔고 약 100조원을 기반으로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며 새 수익원으로 자리잡았다.

LG전자를 보는 시장의 시선도 달라졌다. 그간 가전 수요와 경기 변동에 따라 실적이 출렁이는 기업으로 평가받았지만 시장에서는 LG전자를 냉각·로봇·전장을 아우르는 AI 인프라 수혜 기업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 실제 최근 씨티(Citi)증권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등 해외 투자은행은 이들 사업을 핵심 성장축으로 지목하며 목표주가를 잇따라 올렸다.

이 같은 전환은 한국 가전 산업의 진화와도 맞물린다. 세계 시장을 이끌어온 한국 가전이 그동안 쌓은 열관리·모터·제어 기술을 AI 인프라라는 새 영역으로 옮기고 있어서다. 생활가전 매출에서 세계 1위에 오른 LG전자가 그 선두에 있다. LG전자는 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맞춰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LG전자 ES사업본부장 이재성 사장은 "내재된 기술력과 고객 맞춤형 고효율 냉각 솔루션, 공조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데이터센터 열관리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G전자의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LG 클로이드'가 공장에서 물건을 나르는 모습.

4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막한 'DCW 2026'에 설치된 LG전자 부스. /LG전자

답이 있다면
지구 반대편까지

SK 선대회장 | 최 종 현

- 1979 | 2차 오일쇼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산 5만 배럴 원유 공급 확보
- 1984 | 무자원 산유국 첫 발걸음, 북예멘 마리브 광구 유전 발견
- 1998 | 아시아 지역 새로운 도전, 베트남 15-1광구 석유 개발 시작
- 2010 | 페루 LNG 가스생산, 수송, 수출 수직계열화 완성
- 2014 | 안정적인 LNG 확보를 위한 미국 우드포드 가스전 지분 투자
- 2018 | 독자 운영 및 자체 기술로 남중국해 17/03 광구 원유 발견 성공
- 2022 | 동남아 자원 거점 확대, 말레이시아 SK427 광구 운영권 확보
- 2025 | 자원 영토 확장, 인도네시아 3개 탐사 광구 지분 확보
- 2026 | 호주 바로사 가스전 LNG 첫 도입, 20년간 안정적 공급

작은 가능성에도
수천 미터를 파 내려가고
먼 미래를 위한 일일지라도
주저 없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지난 6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에너지의 답을 찾아갑니다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SK 이노베이션

SK 온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인천석유화학 SK 아이이테크놀로지 SK 어스온

양향자 "좀비 지도부" 직격… 국힘 지도부 사퇴론 재점화

"지선 패배 책임지고 사퇴" 압박
장동혁 "지지해준 국민 모욕" 반발
18일 의총 지도부 거취 분수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내에서 6·3지방선거 참패 책임으로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18일 의원총회가 개최된다. 해당 의총이 '장동혁 지도부'의 향방을 가르는 첫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또 다시 지도부 사퇴를 두고 공개적인 충돌이 일었다.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린다"며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민심을 따르는 합리적인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장동혁 대표가 회의 말미 추가 발언을 통해 양 최고위원의 '좀비 지도부' 표현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오늘 아침에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셨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좀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이 우선이라면서 거취에 대해선 "세 번, 네 번 찾아갔던 공주·부여·청양에서 당선되신 윤용근 의원은 제가 뭐라고 설명해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는 지선 당시 후보들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지 못한 데다가, 지원에 나선 후보들이 대거 패배했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지명직인 조광한 최고위원도 "우리 당의 일부 철없는 그룹들이 외부로 열심히 떠들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1일 최고위에서도 공개 충돌한 바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당시 "우리 모두 사퇴하고 다음 지도부를 위해 미래를 열어주면 좋겠다"고 지도부 동반 사퇴를 제안했고, 조 최고위원이 "철없는 소리"라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당시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해결책이 우선이라며 거취 논의에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개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대안과미래'가 장 대표 거취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의총은 장 대표 거취를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사퇴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다, 이번 의총에서 대안과미래·친한계·소장파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예상되서다. 의총에서 대표를 사퇴시킬 수는 없지만, '지도부 책임론'에 힘을 싣는 의원들이 많아진다면 장 대표도 버티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선 비당권파인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이 직을 던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 사퇴해야 지도부가 무너진다. 이에 두 최고위원이 사퇴한다더라도 당장 지도부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도부가 수세에 몰리면 다른 최고위원들도 직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장 대표가 버티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 특히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역전되는 등, 장 대표의 퇴진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하고 있으며 최근 2025년 8월 말 장 대표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또다시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한 당대표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李,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 교황청에 평화 역할 요청

"세계 평화·국제 연대 위해 협력"
청년대회 언급하며 관심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 성 바오로 대성전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서 유흥식 추기경 겸 성직자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교황청을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 교황청에서 관심을 갖고 성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교황의 방북을 요청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기독교인과 평화의 상징인 레오 14세 교황과 이날 오전 바티칸 교황궁에서 단독 면담을 가졌다. 우리나라 정상과 교황의 만남은 약 5년 만이다. 2021년 10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전 교황과 만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세계 평화와 연대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하며, 레오 14세 교황에게 한반도 평화에 역할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 계기 교황의 방한이 예상되는 만큼, 이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에게 방북을 요청했을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세계청년대회는 교황이 직접 방문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청년 행사로, 아시아 국가 가운데 두 번째이자 가톨릭이 다수 종교가 아닌 국가에서는 처음 열린다.

다만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훈풍이 불던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현재는 남북 관계 경색이 고착 국면에 빠진 상황이어서 이 대통령이 방북을 정식 요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요청했더라도 이 사실을 공개할 지는 미지수다. 문 전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이를 교황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방북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미사 기념연설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를 언급하며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 청년대회를 언급하며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전선과 철조망, 국경의 제약을 넘어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길 바라며, 이를 위한 교황청의 관심과 건설적 역할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교황을 만난 이후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도 면담했다.

/서예진 기자

하반기 공공기관 2차이전 대규모 기업 투자 속도

총리 주재 지방균형국가 범정부 추진협

정부는 지방균형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토공간의 대전환이 실행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 중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비롯해 기업들의 대대적 투자 방안 등의 발표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범정부 추진협의회'에서 해당 정책의 경과를 밝혔다.

김 총리는 "하반기에는 정부에서 준비해 온 성장엔진 발표, 대규모 기업 투자,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방주도 성장과 관련한 지방균형국가를 향한 굵직굵직한 주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정책을 구상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로부터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단계로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는 중앙 정부의 자원을 단순하게 지역별로 균등 배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토 구조를 바꾸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국가 전략 과제"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 추진체계 및 관리계획 ▲5극 3특 성장엔진 7대 지원패키지 ▲초광역단위 국토계획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정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파격적인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와 공공 금융을 활용하는 등 충분한 자금 지원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지역 주도 R&D 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성장 엔진 산업 스타트업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李 대통령, 음모론·사적 검문행위 엄정 대응 지시

>> 1면 '유럽서 화상 수보회의'서 계속

그러면서도 "그런데 이걸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더 고개를 들고 있다"며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고,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한다.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검문 행위도 하고 출입을 막는 등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명확한 선이 법과 제도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선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빠르면 이번주부터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된다고 한다.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구성을 지시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두고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며 "청년들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할 때"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민정수석실의 보고에 대해 "시위대의 행태 중에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 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4년의 성패가 이번 국정 2년 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첫 1년이 내란의 혼란을 수습하고 전체 국정의 설계도를 그리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2년 차 국정은 핵심 과제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며 "필요하다면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을 찾아다니며 입법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책 집행 속도 역시 빠르고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주요 경제 지표들의 개선 움직임이 국민 삶의 질적인 변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웃음 가득할 사장님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활기 넘치는 가게를
꿈꾸는 사장님을 위해
곁에서 든든히 함께하며

하나가 사장님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 개선 및 컨설팅 제공

공공배달앱 연계 소상공인 금융 지원

·공공배달앱(먹깨비) 이용 소상공인 보증한도 지원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 확보 및 지원

·영세가맹점 매출대금 조기지급 프로그램 운영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연체율 증가, 정부 규제 지속에 지방은행, 대출 문 걸어 잠갔다

5대 지방은행, 지난달 가계대출
신규취급 신용점수 평균 891.6점
전북은행 제외하면 평균 921.8점
4대은행 평균과 불과 15.7점 차이
2금융권 대출 증가… 이자비용↑

서울 시내에 위치한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ATM기의 모습. /뉴시스

지방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경기침체 지속으로 대출 연체가 늘면서 건전성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고, 정부도 대출 규제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준(準)고신용자의 주요 대출 창구였던 지방은행 대출이 막히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이자비용도 빠르게 늘고 있다.

15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5대 지방은행(부산·iM·경남·광주·전북)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신용점수 평균은 891.6점이다. 정책금융상품 및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큰 전북은행을 제외한 평균은 921.8점이다. 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평균인 938.5점과의 차이는 15.7점에 그쳤고,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각각 949점과 958점을 기록해 4대은행보다 대출 문턱이 높았다.

주요 은행에 신용평가를 제공하는 신용평가사 KCB(코리아크레딧뷰로)는 지난 2021년 신용점수제 도입 당시 신용등급 1등급의 '초고신용자'를 942~1000점으로 환산했다. '준(準)고신용자'에 해당하는 2등급~3등급은 각각 891~941점, 832~890점으로 환산했다. 지방은행들은 2~3등급에 해당하는 준고신용자의 대출 창구로 기능했는데,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초고신용자 이외는 대출 이용이 어려워진 것.

지방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은 빠르게 늘어나는 연체율 때문이다. 각 사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5대 지방은행의 연체율 평균은 1.19%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0.18%포인트(p) 오른 수준으로, 같은 기간 4대은행 평균인 0.36%과 비교해 약 3배 수준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지방은행의 대출 건전성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모습이다.

지방은행에서 밀려난 대출 수요는 2금융권 대출로 이동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제2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직전월보다 2조 3000억원 늘어나며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가폭에서도 전월(1조 4000억원) 대비 9000억원 늘었다.

제 2금융권의 대출 금리는 10% 전후로 형성된다.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연 5% 수준으로 은행권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저축은행 대출이나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금리는 통상 연 10~19% 수준으로 다소 높다. 금리가 높게 책정되는 만큼 대출수요자의 이자부담도 커진다.

가계부채 억제와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중심의 금융구조 탈피를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도 대출 문턱을 높였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에서도 계속되는 대출 수요 증가에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신규대출을 일시 중단하는 등 대출 총량 관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목표 등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명확한 가운데 은행권 전반에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라며 "특히 지방은행들은 연체율 증가로 건전성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신규대출 취급에 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6억 미만, 20억 이상 아파트 거래 늘었다

서울 부동산시장 '양극화' 심화
지난달 송파 20억 이상 비중 54.9%
광진구·관악구 3억~6억 비중 늘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지난달 2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와 함께 임차 수요가 매매로 이동하면서 3억~6억원 사이의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가격대별 매매거래 비중은 지난달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이 19.5%로 올해 1월 15.8%에서 높아졌으며, 20억원 이상 역시 13.6%로 올해 1월(10.4%) 대비 비중이 상승했다.

반면 6억원 이상에서 20억원 미만 사이의 아파트 거래 비중은 연초 대비 모두 하락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의 20억원 이상 거래 비중이 같은 기간 36.1%에서 54.9%로 증가했고, 강남·서초·용산 등에서도 20억원 이상 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광진구와 관악구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비중이 늘었고, 동작구 역시 3억원 이상~9억원 미만 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시장은 강남권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초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가격대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이라며 "전세 매물 부족과 임대차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부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데다 대출 규제 환경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가격대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지역별 거래 구조 차이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기·인천은 지역별로 차별화가 됐다.

용인시는 반도체 호황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9억원 이상 거래 비중이 19.0%에서 28.3%로 확대됐다. 특히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비중은 14.6%에서 20.0%,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비중도 연초 4.0%에서 7.2%로 늘었다.

성남시는 분당과 판교를 중심으로 20억원 이상 거래 비중이 6.7%에서 11.4%로 확대됐다. 하남시 역시 신주거지와 서울 접근성이 맞물리며 12억원 이상 거래 비중이 30% 까지 높아졌다.

직방 관계자는 "경기 전체가 같은 흐름을 보이기보다는 서울 접근성이나 주요 산업·업무지구와의 연계성, 지역별 주택 가격 수준에 따라 거래가 집중되는 가격대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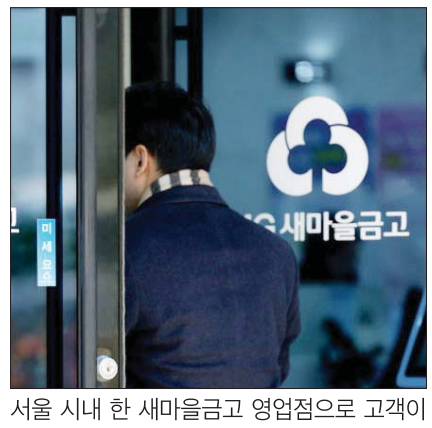
인천은 가격대별 거래 비중 변화가 크지 않은 가운데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이 거래의 중심을 유지했다.

한편 지난달 전국적으로는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3억 원 미만 거래 비중이 34.9%로 가장 높았다.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가 33.8%로 그 뒤를 이었으며, 20억원 이상은 비중이 2.5%에 불과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상호금융 '수신 경쟁' 4%대 예·적금 등장

신협, 12개월 만기 예금 금리 4.25%
새마을금고 18곳서 4.21% 상품 선봬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으로 고객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상호금융권이 예·적금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증시로의 머니무브 현상이 지속되는 데다 한국은행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고하면서다. 금리 인상 시 은행권과의 수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제적으로 예수금을 확보하는 모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4%대 이상 예·적금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12개월 만기 신협 예금금리는 최대 4.25%, 새마을금고는 4.21%까지 올랐다.

신협의 경우에는 군산팔마신협이 최대 4.25% 금리의 '한아름정기예탁금' 상품을 제공한다. 공주신협은 4.10%, 홍성신협은 4.00% 금리의 '유니온정기예탁금'을 선보인다.

새마을금고는 다수 지역 금고가 금리 연 4.21%에 달하는 정기예금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총 18곳의 지역 새마을금고가 최대 4.21% 금리의 예금 상품을 내놨다. 북천안새마을금고, 한누리새마을금고, 예스새마을금고, 북천안새마을금고 번영로지점 등이 제공하는 'MG더뱅킹정기예금' 상품이 대표적이다.

고금리 정기적금 상품도 있다. 압량신협은 '하나더적금' 상품을 12개월 만기 7.00%에, 참우리신협은 5.50%에, 신탄진신협은 4.70%에 제공한다. 정읍새마을금고는 'MG희망나눔걸음마적금' 상품을 최대 12%에, 우리새마을금고는 'MG 뉴정기적금'을 8.50%에 선보인다.

현재 상호금융 예금금리는 저축은행과 시중은행보다 높다. 현재 저축은행 업권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1년 만기 예금 상품은 안양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이다. 최대 금리는 연 4.00% 수준이다. 1금융권에서는 전북은행의 'JB 1·2·3 정기예금'이 3.70%로 가장 높다.

상호금융이 예·적금 금리를 올리는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주식 시장 '머니무브'다. 주식 시장 호황기에 주식장으로 유출됐던 자금을 예적금 금리 상승으로 다시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승 신호가 꼽힌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시장금리가 상승한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자연스레 은행권 수신 경쟁이 발생한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 뒤 수신 경쟁에 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최근까지 자연적으로 고금리 예금이 감소했다. 그런 시기가 이어지다 보니 자금조달 비용 구조가 좀 저비용화 된 측면이 있다. 그러다보니 합리적인 금리 선택권을 소비자들에게 준다고 해도 감당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3년간 월 50만원 넣으면 2255만원 준다"

최고금리 19.4% '청년미래적금'
금융위, 22일 출시… 19~34세 대상
기업·농협·신한 등 14곳서 가입 진행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금리 최고 19.4%의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과 가입·심사 일정 및 세부 가입 절차 등을 사전 안내했다.

청년미래적금은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최고 19.4% 실질 금리를 적용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15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22일부터 가입신청을 진행한다. 1차 가입신청은 오는 7월 2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첫 5영업일(22일~26)일 동안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한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소득 수준 및 중소기업 재직 여부에 따라 3년간 최고 19.4%의 실질금리를 적용하는 적금 형태의 정책금융상품이다. 우대형을 기준으로 매달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만기 시 약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이번 가입신청을 시작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 가입 신청을 진행한다.

이번 가입신청은 취급 기관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번 가입기간 동안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우정사업본부 등 14곳에서 가입 진행을 진행한다. 오는 12월부터는 토스뱅크에서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취급기관별 금리는 공통금리 연 5%에 더해 기관별로 우대금리 2~3%포인트(p)를 더해 최고 7~8%의 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 요건에는 주거래은행, 당행 청약통장 가입 등이 적용되는 만큼 가입기간 별 우대금리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청년미래적금은 직전 연도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우대형의 경우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하거나 중소기업에 신규 재직하는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이라면 군 장병 급여도 소득으로 간주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됐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 신청 시에는 일반형·우대형 관계없이 신청을 받으며, 소득 심사와 중소기업 취업 여부를 확인해 일반형·우대형 대상이 자동으로 분류된다. 단, 우대형 가입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을 기준으로 상품 유형을 평가하는 등 가입 절차에 차이가 있다. 우대형 적용자의 경우 최종심사 결과 통보 시 우대형 가입 가능 여부가 통보된다.

지난 정부의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이번 6~8월 최초가입기간에 한해 갈아타기를 허용한다. 상품 갈아타기는 청년미래적금에 신규 가입한 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특별중도해지 시에는 그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를 적용하나 일시 납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은 불가하다.

청년미래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에서는 가입대상 및 혜택 안내, 만기해지 예상 금액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가입심사 진행과정도 조회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삼성, 완제품 가상검증 체계 구축… 출시 경쟁력 높인다

상암 데이터센터 HPC 517대 구축
연산속도 5.8배·검증량 6배 확대
TV 낙하검증 15일서 2일로 단축
스마트폰 전방위 낙하시험 가능
시제품 제작비·시험기간 동시 절감

삼성전자 서초 사옥. /메트로신문

삼성전자가 가전과 스마트폰 완제품 개발에 특화한 고성능컴퓨팅(HPC) 전용 인프라를 자체 구축했다. 제품 검증을 실물 시제품이 아닌 가상 환경에서 처리해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으로, 출시 주기가 곧 경쟁력인 가전·정보기술(IT) 시장에서 우위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완제품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서울 상암동 데이터센터에 HPC 서버 517대를 구축하고 이달부터 기구·회로 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새 인프라는 기존 시스템보다 연산 속도가 약 5.8배 빨라지고 가상 검증량은 약 6배 늘었다.

검증 효과는 개발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다. TV 낙하 검증은 기존 15일에서 2일로, 세탁기 부품 장기 검증은 5일로 줄어든다. 스마트폰은 물리적 제약으로 수행하지 못했던 모든 각도의 낙하 시험이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삼성전자는 TV 발열 검증, 로봇청소기 충돌 검증 등에 HPC 인프라를 활용한다.

그동안 HPC는 시제품 제작비가 큰 자동차·항공 등 산업에서 주로 쓰였다. 삼성전자는 이를 스마트폰·TV·세탁기 등 가전·IT 완제품 검증용으로 전용 구축했다. 그 결과 실물 시제품을 만들어 반복 시험하던 과정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면서, 시제품 제작 비용과 시험 기간을 동시에 줄일 수 있게 됐다.

검증기간 단축은 신제품 출시 주기와 직결된다. 스마트폰과 가전은 신제품 경쟁이 치열하고 출시 시점이 시장 점유율을 좌우하는 만큼, 개발 단계의 시간 단축은 제품을 시장에 먼저 출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검증 횟수를 늘려 품질 신뢰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경쟁력으로 꼽힌다.

자체 시스템으로 구축했다는 점 역시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외부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아 제품 설계 도면과 검증 데이터 등 핵심 기술 자산을 내부에서 처리함으로써 보안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규모 해석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번 인프라는 삼성전자의 AI 자율공장 전환 전략과도 연결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2030년까지 국내외 모든 생산 공장을 AI 자율공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개발 단계에서 축적한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해석 역량이 제조 공정의 디지털트윈으로 이어지면서 개발부터 양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AI 전환(AX) 체계로 확장될 전망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가전과 스마트폰은 출시 시점을 며칠만 앞당겨도 시장 선점 효과가 크다"며 "검증을 가상으로 돌려 개발 일정을 단축하면 경쟁사와의 출시 경쟁에서 직접적인 이점이 된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철강업계, 하반기 반등 기대… EU 규제 변수

K-스틸법 시행에 지원 본격화
중동 리스크 완화로 비용 부담 감소
대미 수출 71.4% 늘며 수요 확대

중국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 등으로 침체를 겪어온 국내 철강업계가 하반기 반등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K-스틸법 시행과 중동 전쟁 종전 합의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 미국 시장 수요 확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다. 다만 EU의 수입 규제 강화는 여전히 최대 변수로 꼽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종전 합의가 발표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예고되면서 철강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간 중동 리스크는 해상운임과 환율의 변동성을 키워 철강사들의 수익성을 압박해왔다. 실제 올해 1분기 포스코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36.6% 감소한 2130억원을 기록했고, 현대제철 역시 판매량 증가에도 고환율과 원재료 가격 상승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보다 63.7% 줄었다.

제도적 지원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을 시행한다. 정부는 저탄소 철강 인증제와 저탄소 철강 특구 제도를 도입해 친환경 설비 투자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도 신설해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개발 등 후속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격 방어와 수요 확대 흐름도 반등 기대를 키우고 있다. 국내에서는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 저가 수입재 유입이 감소하면서 철강 가격이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철강 수요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대미 철강 수출량은 39만9852톤으로 전년 동기(23만3351톤) 대비 71.4% 증가했다. 관세 부담에도 현지 철강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EU 시장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EU는 다음 달 1일부터 철강 세이프가드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높이고, 무관세 수입 쿼터도 축소할 예정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약 30억달러로 전체 철강 수출의 12.2%를 차지해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정상외교를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EU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한국 철강업계의 우려를 전달했으며 정부는 쿼터 물량 협상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윤 철강산업연구원은 "미국은 현지 수요 증가를 자국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수입산과의 가격 격차가 예상보다 크게 벌어졌다"며 "유럽도 한국보다 가격 수준은 높지만 미국만큼 차이가 크지 않아, 쿼터 외 물량에 50% 관세가 붙으면 미국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유혜온 기자 dhaledhale@

김동명 "배터리는 에너지 핵심 인프라"

〈LG에너지솔루션 사장〉

LG엔솔, 美 시카고서 BTC 개최
석·박사급 연구인재 40여명 참석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CEO) 사장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글로벌 인재 행사 'BTC'(배터리 테크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이 배터리를 에너지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글로벌 연구 인재 확보에 직접 나섰다. 전기차 배터리를 넘어 ESS, 차세대 전지, AI 기반 제조 기술로 경쟁 축이 넓어지는 가운데 미래 기술을 이끌 석·박사급 인재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글로벌 인재 행사 'BTC(배터리 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B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세계 각국의 석·박사급 인재를 초청해 기술 비전과 연구개발 방향을 소개하는 채용 연계형 행사다. 올해 행사에는 MIT, 스탠퍼드대, UC버클리, 시카고대, 아르곤국립연구소 등 미주 지역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의 석·박사 및 연구원 40여명이 참석했다.

김 사장은 환영사에서 "이제 배터리는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며 "미래 에너지 산업의 방향을 함께 설계할 인재들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 사장을 비롯해 이진규 최고디지털책임자(CDO), 김기수 최고인사책임자(CHO)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연구조직 현황과 기술 비전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ESS와 차세대 전지 등 배터리 핵심 분야뿐 아니라 AI, 피지컬 AI 등 미래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원관희 기자 wkh@

장인화 "국민 신뢰 회복 위해 안전체계 전면 재정비"

〈포스코그룹 회장〉

신안산선 사망사고 후속 대책
안전전문인력 정규직화 추진
글로벌 안전전문회사 감독 투입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뉴시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신안산선 공사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전문인력을 정규직화하고 글로벌 안전전문회사의 감독 인력을 투입하는 등 고강도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안전예산 확대와 조직 혁신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스코그룹 경영진과 간담회를 열고 신안산선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신안산선 3-2공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 이후 마련됐다. 신안산선 현장에서는 지난 2024년 이후 총 4건의 중대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이날 김 장관은 신안산선과 같은 고위험 현장에 대한 특별 관리와 안전투자 확대, 안전보건관리자 확충 등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장 회장은 "그룹 전 사업장에서 동일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예산 확보와 관련 투자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산업안전 부문에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 회장은 "깊이 70미터에 달하는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공구는 일반 사업장보다 위험도가 두 배 이상 높은 현장"이라며 "모든 공구의 현장 안전전문인력을 정규직화하고 법정 기준 이상으로 증원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전문회사 슈퍼바이저를 신안산선 전 현장에 집중 배치해 공사 완료 시점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그룹 안팎의 어떠한 전문가 의견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과 철강 등 전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그룹 관계자는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일터에서 귀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현대로템, AI 대드론 체계 앞세워 유럽 공략

유로사토리서 무인 C-UAS 공개
K2·무인체계로 지상전 수요 겨냥

현대로템이 인공지능(AI) 기반 대드론 방호체계와 유무인 복합 운용 역량을 앞세워 미래 지상전 수요 공략에 나선다. 수출형 K2 전차와 무인체계 라인업을 함께 선보이며 글로벌 지상무기 시장에서 수출 기회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현대로템은 오는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방산 전시회 '유로사토리 2026'에 참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전시회에는 전 세계 약 70개국에서 2100여 개 업체가 참가한다. 현대로템은 현대위아와 함께 현대자동차그룹 통합관을 꾸려 글로벌 영업 활동에 나선다.

현대로템은 '국방의 미래를 이끄는 힘'을 주제로 AI 기반 지상전력 비전을 제시한다. 이번 전시의 핵심은 최초 공개되는 AI 기반 무인포탑형 대드론(C-UAS) 다층방호체계와 수출형 K2 전차다. 차륜형장갑차와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HR-SHERPA)' 등도 함께 선보인다.

무인포탑형 대드론 다층방호체계는 현대로템이 자체 개발 중인 첨단 방호 기술이다. AI 탐지·식별 알고리즘이 적 드론 등 위협체의 종류와 거리, 고도 등을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 절차를 자동 수행한다.

이 체계에는 전파 교란 방식의 소프트킬과 물리적 요격 방식의 하드킬 시스템이 함께 적용된다. 레이더와 정찰 드론 등 감시장비가 위협체를 원거리에서 탐지하면 AI가 위협 수준을 분류하고, 재머를 활용해 1차 무력화를 수행한다.

/유혜온 기자

벤처스타트업 단체 "자본시장 개편안 속도·균형 필요"

벤처협회·VC협회·코스포 기자회견
코스닥 세그먼트 도입 등 '반대'
정책시행 유예하거나 재검토 입장

15일 여의도에서 열린 공동 정책제안 기자간담회에서 벤처업계 대표들이 자본시장 개편 관련 5대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벤처스타트업 관련 단체들이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개편안에 대해 '속도'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추진안이 규제와 관리에만 머물 경우 혁신기업에 마중물을 붓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켜 결국 벤처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을 구분하는 세그먼트 제도 도입과 일정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장사들의 퇴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방향 등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교감이 없었던 만큼 빠른 시기에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산적금융 정책협의체'를 꾸려야한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혁신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자본시장'을 주제로 공동 정책제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세그먼트 시행유예 및 재검토 ▲중복상장 금지 규제 예외 적용 ▲상장폐지요건 시행 유예 및 기준재고 ▲정책협의체 상설화 ▲기술특례상장 제도 보완 등을 중심으로 한 '5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자본시장 개편안에 대해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현장 우려와 보완과제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송병준 벤처협회장은 "협회가 지난해 제안한 '코스닥 3000 시대'는 1년이 지난 지금도 근본적인 변화가 체감되지 않고 오히려 코스피·코스닥 간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 지수는 올랐지만 모두가 오른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하면서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향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일부 세부 정책은 벤처·스타트업의 특성을 담지 못한 채 전통 금융의 관리·통제 시각이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고 꼬집었다.

송 회장은 "벤처기업이 흔들리면 코스닥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발표한)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자본시장의 신뢰가 저하되고 낙인효과로 상장 폐지 기업이 늘면 코스닥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혁신기업들의 자금조달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스닥 시장을 인위적으로 프리미엄, 스탠다드 등으로 서열화하려는 세그먼트 방향이 대표적이다.

업계는 관련 정책 시행을 유예하거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벤처투자 생태계는 건강하게 작동하고 선진화돼야한다. 그 핵심은 글로벌 기술이다. 기술기업들이 상장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성장사다리가 만들어져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코스닥 시장은 관련 기업들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성장 플랫폼이 돼야한다"면서 "세그먼트 도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한다. 상장기업들은 강등을 피하기위해 미래 투자 대신 단기 이익에 집중하고 스탠다드에 남겨진 벤처기업들은 낙인이 찍힐 것이다. 프리미엄 세그먼트를 신설해야한다면 반드시 기술가치 중심의 트랙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면 코스닥 시장 전반에 유동성을 공급하기위해 30조원 규모의 코스닥 활성화 펀드 조성도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제언이다. 연기금과 공제회 등의 코스닥 스탠다드 세그먼트 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등 기관 자금 유입 수단도 강구해야한다는 목소리다.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회생이 어려운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은 필요하다. 쪼개기 상장도 통제돼야한다. 하지만 스타트업 현장 상황은 다르다. 상장의 문이 좁아지면 투자와 회수 등 순환이 멈추게 된다. 규제의 잣대는 함께 상장했느냐가 아니라 상장에 따른 이익을 지배주주가 가져갔느냐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LS전선, 동해안-수도권 HVDC 2단계 수주

1단계 동해안-신가평 구간 이어
2단계 1460억 수주… 총 2340억

LS전선 직원이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HVDC 케이블이 투입되는 동해안-신가평 시공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LS전선

LS전선이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국가 핵심 전력망 구축 사업에 연이어 참여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 확대로 대규모 전력 수송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 수주를 통해 전력 인프라 사업 기반을 넓히고 있다.

LS전선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동해안-수도권 HVDC 2단계 사업을 턴키 방식으로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해안-동서울 구간에 HVDC 케이블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LS전선은 2024년 동해안-신가평 구간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에도 참여하게 됐다. 1단계 수주액은 약 880억원, 2단계 수주액은 약 1460억원으로 총 공급 규모는 약 2340억원이다.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은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 사업이다. 전력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역 간 송전망을 보강하고 전력 수급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LS전선은 국가핵심기술인 500㎸급 HVDC 케이블을 독자 개발해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다.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525㎸·90℃급 HVDC 케이블도 상용화하며 대용량 전력망 사업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했다.

국내외 사업 경험도 쌓고 있다. LS전선은 제주 2·3연계 사업과 북당진-고덕 1·2단계 사업 등을 수행하며 국내 HVDC 사업에 참여해 왔다. 해외에서는 독일 송전망 운영사 테넷이 추진하는 약 7조원 규모 초고압 전력망 사업에서 단일 공급사 기준 최대인 약 3조원 규모의 계약을 확보했다.

HVDC는 교류(AC) 대비 송전 손실이 적고 장거리 대용량 전송에 유리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최근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 투자 확대에 따라 대규모 전력 수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HVDC가 국가 전력 인프라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김형원 LS전선 에너지·시공사업본부장은 "HVDC 사업은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기술력뿐 아니라 실제 전력망에서 검증된 상용화 경험이 중요하다"며 "국내외 주요 HVDC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소진공, 위기 소상공인 재기 밀착 지원

위기징후 모니터링 후 알림톡 발송
수신자 대상 '1대 1 맞춤형 경영진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위기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재기를 연중 밀착 지원한다.

소진공은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위기 소상공인 진단·멘토링 지원사업'을 상시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위기 소상공인 1200개사로, 전문가 현장 진단을 통해 경영개선 전략을 제시하고 맞춤형 밀착 멘토링을 지원한다.

지난 5월부터 소진공·지역 신용보증재단·17개 민간은행은 위기소상공인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위기징후 모니터링으로 위기 소상공인을 선별한 후 '위기 알림톡'을 발송하고 있다.

위기징후 모니터링 선별 기준은 ▲소진공 대출 이용자 중 연체 일수 1일 이상 90일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자 중 보증 사고가 발생하거나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저소득자(연 소득 3000만원 이하) 중 17개 민간은행의 최근 6개월 누적 연체 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다.

'위기 알림톡'을 수신한 소상공인에 대해선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경영 역량을 진단하고 취약 분야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1대1 맞춤형 경영진단'을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

진단 완료 후 도출한 개선 전략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소 3회의 전담 PM 밀착 관리를 제공하며, 희망할 경우 전문 분야의 기술적 사항을 보완하는 채움멘토링(최대 2회)을 추가 제공한다.

또한 진단과 멘토링을 완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후배 네트워킹, 우수상품 판매전,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 주관기관별 강점을 살린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해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현대글로비스

글로벌 물류환경 대응 협력사 100여곳과 논의

현대글로비스가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환경 대응을 위해 100여개 협력사와 머리를 맞댔다.

현대글로비스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및 상생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12일 제주에서 '2026 파트너스데이'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를 비롯해 협력회 103개 사 임직원 등 총 121명이 참석해 인공지능(AI)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S) 등 미래 생존 전략을 모색했다.

/양성운 기자 ysw@

"여성 소상공인, '실속 경영' 뛰어나"

여성경제연구소 WERI 보고서

여성이 사장인 소상공인들이 남성 소상공인보다 매출 등 몸집은 작지만 영업이익률 등 내실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속 경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돌봄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같은 내용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부설 여성경제연구소(여경연)가 15일 내놓은 '여성 소상공인의 특성 및 시사점'을 담은 WERI 보고서에서 나왔다.

전체 여성기업 중 소상공인 비율은 97.5%, 갯수로는 총 328만7455개였다. 여성 소상공인은 남성 소상공인과 비교해 '교육서비스업'(2배), '숙박 및 음식점업'(1.4배)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형인 연평균 매출액을 살펴보면 남성 소상공인이 2억4600만원, 여성 소상공인이 1억3300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평균 영업이익도 남성(2900만원)이 여성(2000만원)을 앞섰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여성 소상공인이 15%로, 남성 소상공인(11.8%)보다 3.2%포인트(p) 높았다. 여경연은 "여성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매출 규모에도 내실 있는 경영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제주항공, 지난달 황금연휴 수송객 LCC 1위

5개월 연속 月 수송객 100만명 돌파

제주항공 B737-8 항공기. /제주항공

제주항공이 지난달 황금연휴 여행 수요에 힘입어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가장 많은 승객을 수송했다. 5개월 연속 월간 수송객 100만명을 돌파하며 업계 선두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15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지난달 수송객 수는 110만7549명으로 전년 동기(102만9004명) 대비 7.6% 증가했다. 국내선은 42만4036명으로 1.9%, 국제선은 68만3513명으로 11.5% 각각 늘었다.

제주항공은 지난 1월 117만6532명, 2월 106만7659명, 3월 106만7167명, 4월 112만7370명에 이어 5월에도 100만명 이상을 수송했다. 국적 LCC 가운데 5개월 연속 월간 수송객 100만명을 넘긴 곳은 제주항공이 유일하다. 1~5월 누적 수송객 수도 554만627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3만1482명)보다 19.8% 증가하며 LCC 가운데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탑승률도 업계 평균을 웃돌았다. 제주항공의 5월 전체 탑승률은 88.2%로 국적 LCC 9개사 평균(85.8%)보다 2.4%포인트 높았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S HOUSE BRAND GORILLA

김종철 "JTBC 재무건전성 볼 것… 통합미디어법도 속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방미통위, 재승인 심사서 재무 검토
"방송사업 운영, 직접적 영향 없어"
구글·애플 인앱결제 조치도 속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OTT 등을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최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JTBC의 재무 건전성과 기술적 운영 능력 등을 들여다 본다.

1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JTBC 경영 위기와 관련해 "방송 영역의 주무 기관으로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사무처에 상황 파악과 모니터링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1차적으로 재정 정상화와 유동성 위기 문제이고, 이것 자체가 방송 사업 자체에 직접적인 당장의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JTBC는 재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대상으로 중요 평가 사항에 재무·기술 분야 평가도 포함돼 있어 주목해서 살펴 볼 것"이라고 했다.

이날 JTBC를 비롯해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등 중앙홀딩스 핵심 계열사 5곳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에 집중한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어 5월에는 허위로 조작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 밖에 홈쇼핑 업계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통신분야의 경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했다. 또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는 등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에 따라 미디어 규제 재편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송과 OTT를 함께 규율하는 통합미디어법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기존 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광고·편성 규제와 글로벌 OTT의 규제 차이를 조정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재원 구조도 함께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해외 OTT를 단순히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방식은 통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국내외 사업자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 모두가 경제적 차이에 관계없이 미디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의식주가 생존의 필수 요소였다면 지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미디어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미디어를 필수 공공재이자 사회 인프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자신의 SNS 게시글을 통해 미디오 기본사회 구상을 발표하며 이같은 관점을 제시했다.

미디어 바우처에 대해서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방안 가운데 하나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콘텐츠와 플랫폼 접근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연구되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OTT 바우처가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이 바우처를 통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양질의 콘텐츠를 선택해 볼 수 있다는 관점도 있다"고도 했다.

방송 3법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방미통위는 현재 방송 3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과 규칙 정비,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등을 진행 중이다. 방미통위는 올해 하반기 재허가 심사에도 편성위원회와 편성규약 운영 여부를 새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공식적인 조치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2023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원과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지만, 2인 체제 의결 논란으로 처분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체계 일원화

과기부, 보상신청관리시스템 구축
건물 11만개소, 설비 14.4만개 대상
지방 정부와 밀착형 홍보도 확대

앞으로 인터넷 설비 등에 쓰인 공용 전기료에 대한 보상 신청을 온라인이나 전용 콜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 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설비의 공용 전기료 보상 신청과 처리체계를 일원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을 맡은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상 여부 상담과 신청 안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도 참여했다.

그 동안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용 전기료를 해당 통신 사업자가 부담해야함에도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이같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통신사업자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시범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올해 1월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 공용 전기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상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제주방송, 서경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 4곳도 함께 참여했다. 전수 조사 및 보상 대상 건물은 11만 개소, 설비는 총 14만4000개다.

이날부터 인터넷 설비 공용 전기료 보상신청과 처리체계를 일원화한다. 종전에는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 콜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문의·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상신청관리시스템 한 곳에서 하면 된다.

공동주택 건물주, 총무, 위탁관리업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한 뒤 보상신청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관리 주체와 건물 정보, 사업자별 설비 사진 등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 시스템은 사업자의 보상·계약 관리, 관리주체 정보 관리, 현장조사 이력 관리, 신규 구축설비 관리 등 인터넷 설비 운영 실태를 통합·상시 관리하는 기반으로 활용된다.

또한 지방정부와 협조를 통해 지역 밀착형 홍보도 확대한다. 전국단위 전수조사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조사·보상 진행 상황도 TF를 통해 매월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한전 비상통신망에 스타링크 도입

한전-SK텔링크-스타링크 '맞손'

SK텔링크는 한국전력공사·스타링크코리아와 저궤도 위성통신 적용을 위한 3자 협력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한국형 공공 위성통신 모델 구축을 목표로 전국 15개 한전 본부에서 가동하는 비상통신망에 저궤도 위성통신을 적용한다. 재난 상황에서 안정적인 통신 체계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SK텔링크는 고정 IP, 인터넷전화, 보안 연계, 단말 공급 등 기술을 지원하고, 스타링크코리아는 글로벌 위성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한전은 글로벌 표준을 국내 공공 인프라 여건에 맞게 최적화하고 통합 서비스 모델을 구현한다.

협력은 3단계로 추진한다. 먼저, 나주 본사 등 2개 지역 본부에 스타링크와 인터넷 전화를 결합한다. 2년 약정형 사업으로 SK텔링크는 단말 제공과 통신 서비스를 책임진다.

한전 ICT 운영처와 재난용 비상통신망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경북본부와 강원본부를 대상으로 스타링크 차량용(5대), 이동형(3대)를 구축해 운영성을 검증한다. 대형 산불 발생 지역 등 산악지역과 오지에 통신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환경에서 실제 활용성을 점검하고 현장 작업자와 재난 대응 인력의 통신 운용 시나리오를 검증한다.

이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기준과 장비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전국 15개 본부로 비상통신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국 단위의 재난 대응 통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AI가 외국인 고객 응대… KT, 다국어 상담 서비스 확대

중국어·태국어 등 20여개 언어 지원

외국인 고객이 KT 파워콜 안산역점에서 다국어 AI 상담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있다. /KT

KT가 외국인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다국어 인공지능(AI) 상담사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KT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절차, 멤버십 혜택 등 통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한다. 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20여개 언어를 지원한다. 유무선 통신 상품과 이용 조건을 외국인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KT는 다국어 AI 상담사의 상담 품질과 응답 정확도, 혜택 안내 기능도 고도화할 예정이며 향후 앱 기반의 사후 관리 기능도 연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고객들은 요금제와 이용 현황, 멤버십 혜택 등 매장 밖에서도 자국어로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데이터도 세밀하게 분석·파악해 외국인 특화 상품 기획, 혜택 정교화 등에 반영한다. 이를 사내 원격 교육 수단으로도 활용해 현장 상담사를 대상으로 신규 상품과 서비스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KT는 앞서 대화형 AI 스타트업 씨플랫에이아이와 AI 우수 적용 사례를 공동 발굴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부터 안산, 혜화, 수원 등 수도권에 있는 외국인 특화 매장에서 다국어 AI 상담사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고객 상담 지원 효과와 매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조민선 기자

LG헬로비전, 알뜰폰에 쇼핑 할인 더했다

현대홈쇼핑 연계 요금제 출시

알뜰폰 브랜드 헬로모바일이 현대홈쇼핑 제휴 요금제를 출시했다. /LG헬로비전

LG헬로비전은 알뜰폰 브랜드 '헬로모바일'이 현대홈쇼핑 유심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현대홈쇼핑과 제휴를 통해 생활 밀착형 혜택을 확대했다. 통신비 등 소비 생활에서 실속을 추구하는 알뜰폰 소비자 특성에 주목해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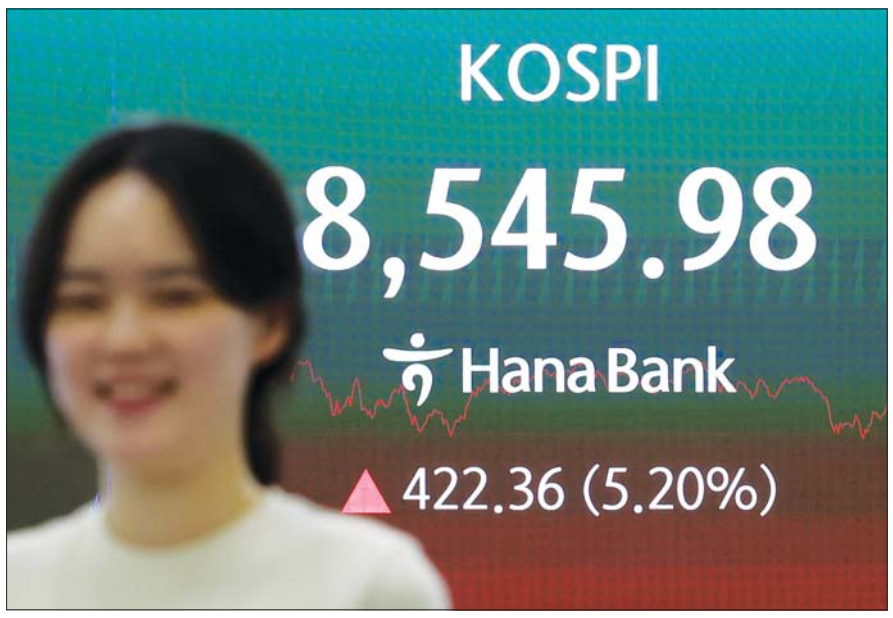
가입 고객은 현대홈쇼핑이 운영하는 H몰에서 적립금 5000원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전 상품을 대상으로 5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할인 쿠폰을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TV방송 상품을 구매하면 3만원 이상 구매 시 3만원 할인 혜택도 받아 볼 수 있다. 혜택 기간은 가입 후 24개월이다.

요금제 구성은 기본 제공 데이터량에 따라 월 9000원대 가성비 라인부터 4만원대까지 다양하다. 데이터를 전부 소진하면 최대 5Mbps 속도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헬로모바일 제휴 카드를 이용하면 월 최대 2만원 추가 할인해준다.

/조민선 기자

종전 기대에 코스피 8500 재돌파… 환율도 일단 안정세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강세
외국인 이틀째 조단위 순매수
원·달러 환율 1510원대 하락
호르무즈 개방 기대감 반영
아시아 AI 밸류체인 동반 반등
MOU·금리 변수에 변동성 경계



코스피가 전 거래일(8123.62)보다 422.36포인트(5.20%) 오른 8545.98에 마감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되어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029.05)보다 4.98포인트(0.48%) 상승한 1034.03,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519.8원)보다 8.7원 내린 1511.1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미국과 이란이 14일(현지시간) 종전 소식을 전한 뒤 큰 폭으로 오른 코스피가 다시 8540에 올라섰다. 종전으로 인한 안도감과 인공지능(AI)발 반도체 랠리가 펼쳐지며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를 팔아치우던 외국인이 이틀 연속 조 단위 순매수에 나서며 원·달러 환율도 1511원대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전쟁이 마무리되기까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해 당분간 변동성 높은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등 실적 기대감↑

15일 코스피는 5.20% 급등한 8545.98로 마감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6분 2초를 기해 코스피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66.00포인트(5.07%) 상승한 1365.85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한다.

안도 랠리는 정보기술(IT) 업종이 주도했다. 전날 89% 상승했던 삼성전자는 이날 4.5% 상승한 33만7000원으로 마감하며 '33만 전자'를 회복했다. SK하이닉스는 6.42% 급등했다. 삼성전자 우선주(+4.35%), SK스퀘어(+4.05%) 등도 반등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호르무즈 해협의 짙은 전운이 가시지 않으면서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금세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지만, 이날 극적으로 종전에 합의해 최악을 피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서 에너지 공급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국제 유가 하락은 무역수지 개선과 기업들의 원가 부담 축소로 직결된다. 이는 반도체, 자동차 등 기존 수출 주도 업종은 물론 유가에 민감한 항공, 해운, 석유화학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국경제에도 장밋빛 희망이 싹튼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며 미국과 이란 협상이 타결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빠르게 재개되는 경우에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기본 전망보다 각각 0.1%포인트(p)씩 높아지고 물가상승률은 올해 0.2%p, 내년 0.3%p씩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 돌아온 외국인, 원화 1400원대 갈까

시장의 관심은 환율에 쏠린다. 중동전쟁 리스크가 빠지면 외환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 그러나 최근 원화 약세의 주 동력이 외국인 주식 순매도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지에 관해선 의문이 있다 .

이날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2조2000억원)가 더해지며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8.7원 내린 1511.1원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은 지난 12일에도 코스피 시장에서 2조204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시장에서는 원화 방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외환 시장 한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원-달러 환율은 앞으로도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이란 종전 협상으로 유가는 80달러 이하로 내리고 채권금리와 환율은 안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는 증시 상승 탄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채권금리와 달러화가 고점에서 소폭 내리는 데 그치고 있고, 곧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결정회의도 있다. 금리 변수로 인한 노이즈 발생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종전은 시작. 과도한 낙관론 경계"

일본 닛케이평균(4.99%), 대만 자취안지수(2.78%)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동반 강세로 전환했다. 한국, 일본, 대만 3국은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국제 유가 상승 영향을 크게 받았다. 중국 증시도 상승 마감했다.

다만 과도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19일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미국과 이란 양국은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향후 60일간 영구 종전과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본협상에 돌입한다. 최악의 중동 전쟁을 고통 속에 지켜봐 온 전 세계는 양국의 극적인 합의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예정된 MOU 체결이 공고한 평화의 시작이 아닌 더 치열하고 전방위적인 '2차 외교 전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앞으로 주어진 60일의 유예기간 동안 양국은 이란 핵물질 처리와 동결자금 해제라는 양대 핵심 의제를 두고 격렬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곧 본격적인 전쟁 청구서가 날아들기 시작할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전쟁의 경제적 비용은 물가 상승률 등의 지표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며 "안도 랠리와 별도로 세계 경제는 높아진 물가 부담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한국투자금융, 글로벌 ABF 시장 공략

CAP 설립에 앵커 투자 참여
캐년·다이치생명과 합작법인
사모신용 넘어 대체투자 확장

한국투자증권 본사 전경.

한국투자금융그룹이 글로벌 자산담보부금융(ABF) 전문 투자법인 설립에 앵커 투자자로 참여하며 국내 금융권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인 ABF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사모신용 중심의 해외 대체투자 영역을 확장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투자금융그룹은 글로벌 자산담보부금융(Asset Backed Finance, 이하 ABF) 전문 투자 법인인 '캐년 ABF 파트너스(Canyon ABF Partners, 이하 CAP)' 설립에 앵커 투자자 자격으로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선진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메가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ABF 시장에 대한 심도 있는 스터디를 바탕으로 단행됐다. 높은 전문성과 진입장벽,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 변동성을 갖춘 ABF 시장에서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추진하기에 앞서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CAP는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사 캐년 파트너스(Canyon Partners), 일본 다이치생명(Daiichi Life Insurance), 한국투자금융그룹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작법인이다. 구조화금융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제이 킴(Jay Kim)이 대표를 맡는다. CAP는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대출 실행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 전문 대출기관 및 지역 은행을 대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는 단순 재무적 투자가 아닌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의 일환이다.

한국투자금융그룹은 글로벌 ABF 시장에 대한 전문 지식과 딜 소싱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투자상품 발굴 및 판매 등 파트너사들과 다양한 사업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사모신용(Private Credit) 중심의 기존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며 새로운 성장동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BF는 소비자 금융, 부동산, 실물 자산, 특허 및 로열티 등 실물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자산의 현금흐름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구조화 상품이다.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KKR에 따르면 글로벌 ABF 자산 규모는 2006년 3조 1000억 달러(약 4732조원)에서 2024년 6조 1000억 달러(약 9313조원)로 2배 가까이 성장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3년 미 지역은행 부실화 사태 등으로 현지 은행들의 대출 공급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대체투자 전문 기관들이 실물 경제의 핵심 유동성 공급자로서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투자금융그룹 관계자는 "ABF는 글로벌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핵심 자산으로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아직 국내에는 도입 초기 단계"라며, "이번 지분 참여는 단기적 수익 창출을 넘어 선진 금융 트렌드를 직접 경험하고 당사의 글로벌 대체투자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탐색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투자는 한국투자금융그룹이 추구하는 '아시아 최고의 금융그룹'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단기적인 투자수익을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새로운 성장 영역에서 장기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CAP 참여를 통해 대체투자 부문에 대한 그룹의 높은 관심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존 강점을 보유한 사모신용 투자 영역을 넘어 ABF 시장으로 전문성과 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대체투자 역량을 한층 강화해가겠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美 주식 품귀 끝나나… 메가 IPO 줄대기

2년간 순공급 1.5조달러 전망
스페이스X 이어 AI 기업 대기
물량 부담·투자수요 전망 엇갈림

스페이스X가 증시에 입성한 데 이어 앤트로픽과 오픈AI의 메가 기업공개(IPO)가 대기하면서 미국 주식 시장이 20년 넘게 지속된 '주식 공급 부족' 상태를 벗어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넘치는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증시 침체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과 인공지능(AI) 선도 종목 등을 기다렸던 투자 수요가 탄탄했던 만큼 공급 물량에도 점차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예측이 엇갈린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 "미국 증시가 지금 닷컴버블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공급 확대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JP모건체이스에 따르면 향후 2년 동안 IPO, 유상증자, 기타 주식 매각 등을 통해 미국 증시에 추가될 물량이 1조5000억달러(약 226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수치는 자사주 매입으로 줄어드는 물량까지 반영한 것이다.

이 추정치가 현실화하면 미국 주식 시장이 1990년대 후반 이후 최대 '순(純) 공급'을 맞게 된다.

지난 20여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은 막대한 자사주 매입과 상장폐지 때문에 투자자들이 살 만한 주식이 줄어드는 '품귀' 현상이 대세였다. 이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편입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시장에서 회수한 규모만 무려 12조달러(약 1경8240조원)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공급량 증대가 증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BCA 리서치의 노아 와이스버거 전략가는 과거에도 대형 IPO가 단행되면 이후 증시가 성장이 정체되거나 역성장할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대형 IPO가 무더기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시장의 우려 요인이며, 증시 전반에 상당한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론도 만만찮다. 물량 증가는 시장의 '리스크'(위험 요인)에 불과하고 기업들의 펀더멘털(실적)이 뒷받침하는 만큼 이번 국면을 증시가 격변하는 계기로 보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는 지적이다.

자산운용사 얼라이언스번스틴의 이니고 프레이저 기관솔루션 부문 공동대표는 "이번 변화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감내해야 할 위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현실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증시 활황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문턱이 좀 더 높아진 정도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 주목받는 스페이스X 등에 애초 억눌렸던 수요가 매우 높다는 분석도 많다.

사모펀드 테세라의 찬 안 설립자는 "현재 엄청난 규모의 투자 수요가 대기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이 수요가 시장 전반의 건강한 체력을 증명하는 신호로는 볼 수 없고, 당장은 꽁꽁 묶여 있던 투자 접근성의 희소성이 빚어낸 결과로 읽힌다"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 godhe@

원가절감·해외사업 전략 통했다 가스公, 부채축소·안전공급 성과

지난해 말 부채비율 397%로 축소
경영효율화·수익성 극대화 등 노력

해외 자원사업서 투자비 3조 회수
공급망 위기 대응 중동산 의존도↓
모잠비크·캐나다 사업 등 투자
2년 연속 평균 상회 주주배당 실천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가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막대한 미수금 누적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동 중심의 수입선을 다변화해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어려운 재무환경 속에서도 2년 연속 주주배당을 단행하며 주주 가치 제고도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500%에 달했던 공사의 부채비율은 경영효율화와 수익성 극대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에 힘입어 2025년 말 397%로 축소됐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요금 정책으로 인해 2024년 말 미수금이 최대 14조원까지 급증하는 심각한 재무위기에 직면했으나, 전방위적인 원가 절감과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한 결과다.

가스공사는 기존 계약의 가격 재협상 및 저렴한 신규 계약을 통해 LNG 조달 원가를 선제적으로 낮췄으며, 경비 절감 등 경영효율화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미수금 증가를 억제했다. 아울러 수익성이 낮은 비핵심 자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수익성과 전략적 가치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

특히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의 성과가 재무구조 개선에 효자 역할을 했다. 가스공사는 최근 3년간 해외 자원사업에서 약 3조원의 투자비를 회수했다. 이 중 호주 2개 LNG 사업에서만 1.3조원을 회수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을 해외 사업에서 추가로 회수할 계획이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한 수입선 다변화 성과도 두드러진다. 가스공사는 중동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중동산 수입 의존도를 2022년 45% 수준에서 2025년 24%로 크게 낮췄다. 오는 2026년 이후에는 18% 수준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8월 체결한 연간 330만 톤 규모의 미국산 LNG 신규 도입 계약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미 통상외교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가속화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2028년 말 생산을 목표로 하는 모잠비크 Coral II 사업의 최종 투자결정을 완료했다. 올해 말까지는 캐나다 LNG 2단계 사업과 모잠비크 Rovuma 사업에 대해서도 최종 투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익 극대화뿐 아니라 지분물량 확보로 에너지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춰 평택·광주·창원 수소생산기지와 전국 57개소의 수소 충전소 구축 등 수소 공급망 확충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해 2023년 국내 최초로 LNG 벙커링 전용선(Blue Whale 호)을 건조·운영하는 등 친환경 신사업도 선도하고 있다.

미수금이 증가하는 재무환경 속에서도 2년 연속 주주배당을 시행하며 주주 중시 경영 실천도 성과로 꼽힌다. 2024회계연도 주당 1455원(시가배당률 4.10%)을 배당한 데 이어, 2025회계연도에는 주당 1154원(시가배당률 2.82%)을 배당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보통주 평균 시가배당률인 2.63%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공사는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부단히 달려왔으며, 수많은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수급안정을 달성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도 마련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국민, 소비자, 주주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국산 온디바이스 AI칩 10종 생태계 가동

산업부, 국산 AI 칩 확보 전략 논의
기업과 '반도체 제조지원 TF' 발족
구매비 지원·제조라인 할당 등 계획

김성열(오른쪽 세번째)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장과 참석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로보티스 본사에서 열린 '제2회 AI 로봇 M.AX 얼라이언스 컨퍼런스'에서 2족 보행 로봇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시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수요 맞춤형 국산 첨단 온디바이스 AI 칩 10종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팹리스(설계)와 파운드리(제조), 글로벌 IP(설계자산)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산 AI 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오후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M.AX 얼라이언스 AI반도체 상반기 총회'를 열고, 국산 AI 칩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수요기업, 팹리스, 파운드리, 반도체 IP 기업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총사업비 8002.3억 원(국비 5111.1억 원) 규모의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알렸다.

산업부는 동 사업을 통해 즉시 상용화할 수 있는 '수요기업 맞춤형 국산 첨단 온디바이스 AI 칩' 10종 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국산 AI 칩을 생산해 완제품에 탑재 및 실증하겠다는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개발된 칩의 안정적인 생산과 검증을 위해 삼성전자(파운드리)와 Arm, 시놉시스, 오픈엣지테크놀로지 등 국내외 주요 IP 기업이 참여하는 '반도체 제조지원 TF'를 발족했다. TF는 국내 팹리스를 대상으로 비용 부담이 큰 반도체 IP 구매비와 설계 소프트웨어(EDA) 라이선스를 지원하고, 시제품이 지연 없이 제작될 수 있도록 파운드리 기술지원과 제조라인 할당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요기업이 시장 니즈를 반영해 앞에서 당겨 주고, 반도체 IP사와 파운드리가 첨단 설계·제조 기반을 뒷받침해주는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제조 생태계가 조성됐다"고 평가하고 "국산 첨단 AI 반도체가 우리 제조업 전반의 대전환(M.AX)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전, 공기업 첫 저궤도 위성통신 도입

550km 고도 위치… 안정적 운영
재난·기상악화에도 지휘계통 유지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산불, 집중호우 등 극단적 자연재해로 기존 통신망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공기업 최초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을 전격 도입한다. 통신 두절로 인한 전력 설비 운영 공백을 원천 차단하고 현장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한전은 15일 저궤도 위성통신(LEO, Low Earth Orbit satellite) 서비스를 활용한 비상통신망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빈발함에 따라, 전력 공급의 핵심 지휘계통을 상시 유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그동안 한전은 정전이나 재난 상황에 대비해 고궤도(3만8500km) 기반의 위성 전화를 운용해 왔다. 그러나 고궤도 위성은 장거리 신호 전송 특성상 데이터 전송 지연이 발생하고, 특히 기상 악화 시 통신이 쉽게 끊기는 고질적인 불편 사항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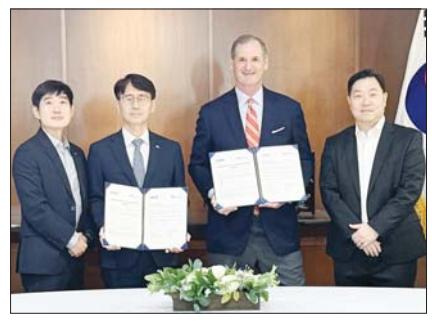
반면 이번에 도입되는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구 표면과 가까운 550km 고도에 위치해 지연 시간이 짧고 기상 변수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한전은 본사와 서울, 경기 등 주요 거점에 저궤도 기반의 위성 전화를 시범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본사와 지역본부 간 지휘·보고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나아가 강원, 경북 산간 지역에 차량용 및 이동형 위성통신 장비도 도입할 예정이다. 특정 지역 통신이 마비되는 재난 상황 발생시, 해당 장비를 현장에 즉각 투입해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며 전력 설비 복구 작업을 지휘하게 된다.

또 산악·도서·해상지역 등 휴대전화 음영지역 현장에도 위성통신 기술을 적용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진공, 美 물류자산 인프라투자 확대

美 기업 CBRE와 '맞손'


지난 1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한국해양진흥공사-CBRE 간 업무협약 행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미국 인프라투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제 공급망 안정화 기여, 국내 기업의 해외 물류기반 확보 등에 목적을 둔다.

공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서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기업인 CBRE와 '미국 시장 내 물류·상업용 부동산 투자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소재 '그위넷'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미국 시장 내 상업용 부동산 및 관련 투자 기회를 공동으로 발굴·검토하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함께 대응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 기관이 힘을 한데 모을 분야는 ▲잠재 투자기회 발굴 및 검토 ▲시장 조사 및 입지 선정, 전략 자문 ▲물류·산업시설·항만 관련 자산 및 기타 상업용 부동산 자산 관련 지원 ▲개발사·투자자·운영사 등 전략적 파트너 소개 ▲실사 지원 및 현지 시장정보 제공 ▲미국 진출 한국기업 지원 관련 기회 발굴 등이다.

해진공은 선박금융뿐 아니라 해운·항만·물류·공급망 전반에 투자하는 종합 해양지원기관이다. 미국의 터미널과 물류센터, 항만 배후단지 등은 글로벌 핵심 공급망으로서 공사의 전략적 투자 대상 중 하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 내 잠재 물류자산을 보다 폭넓게 확보하고, 투자 네트워크를 강화해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 이후에는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미주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해진공의 물류인프라 투자 지원 방안이 안내됐다. 또 현지 투자환경 파악 및 공동 투자자 발굴, 조성 예정인 2차 글로벌 물류·공급망 펀드에 대한 수요를 사전 조사도 이뤄졌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어촌公, 에스와티니에 '농촌개발 사례' 공유

현지 맞춤 정책·제도 발굴 지원

한국농어촌공사가 아프리카 대륙 동남부에 자리한 에스와티니 정부관료를 대상으로, 한국의 농촌개발사례를 공유하고 각종 정책을 소개한다.

공사는 에스와티니 농업부 공무원 15명을 초청해, '에스와티니 농업생산성 및 식량안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연수는 이달 하순까지 진행된다.

이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높이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식량안보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스와티니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농업 생산성 저하, 식량 수입 의존도 증가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공사는 한국의 농업정책과 농촌개발 경험을 공유해 현지 실정에 맞는 정책과 제도 발굴·적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의 농업정책과 농촌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성과 식량안보를 위한 정책 조정, 청년농 육성 및 지원 정책, 농지은행 제도 운영 성과, 기후변화 적응 작물 개발, 고수확·고영양 작물 육종, 농촌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농산물 유통체계와 국가 식량안보, 농업 분야 인공지능(AI) 및 로봇기술 활용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결국!
몬테스
MONTES ALPHA
CABERNET SAUVIGNON
VALLE DE COLCHAGUA·CHILE
BCLI
Since 1996
2025 대한민국 브랜드 고객충성도 1위
Korea Brand 2025 Loyalty Leader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내년 10월 '포항 AI전용데이터센터' 국내 첫 상업운전 개시

광명일반산단에 40MW 규모 착공
전력사용효율 평균 1.25 '최상위'
2단계 사업 성공 시 300MW 규모로

경북 포항에 구축되고 있는 AI전용데이터센터 조감도.

경북 포항에 구축되고 있는 AI전용데이터센터가 내년 10월 국내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일반산단 10만㎡ 부지에 들어서는 이 시설은 40MW 규모로 지어진다.

현재 전력확보는 물론 건축허가를 포함한 모든 인허가와 행정절차가 지난 2월 완료됐고, 5500억원에 이르는 금융조달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경북도는 이 달 착공해서 내년 9월 준공, 10월 상업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의 다른 상업 AI데이터센터보다 평균 2~3년 빠른 것이다.

이처럼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해 프로젝트 주관사는 ▲고효율 설계와 운영비 절감 노력 ▲전력 기반과 토지비용 등 경쟁력 있는 입지 ▲리드 투자자 확보 ▲정책금융 유치 등 지방정부의 패키지 정책지원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데이터센터는 전력사용효율(PUE. 1.0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높음)이 평균 1.25로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일반 데이터센터의 평균 PUE는 약 1.56 수준이다.

또 입지가 비수도권인데다 중다층 구조 설계에 비해 하중 설계와 보강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층구조여서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들고 앞으로 전기요금차등제가 도입되면 운영비(수도권 대비 전기료 20% 이상 절감)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투자에서는 포레스트파트너스(Forest Partners)가 12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입하는 리드투자자로 참여해 이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됐다.

경북도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부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 국민성장펀드 등을 안내해 사업자는 이를 전제로 사업구도를 설계해 왔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경북도 경제혁신추진단과 위탁기관인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IRR)은 집중 컨설팅을 지원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적합한 투자구조를 설계했다.

이에 따라 1단계 40MW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네오AI클라우드가 추진하는 2조원 규모의 2단계 사업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경북도는 밝혔다.

경북도는 260MW 규모의 전력영향평가를 이미 한국전력에 접수했고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정책금융계획을 세우고 있다. 2단계까지 성공하면 이 센터는 300MW규모로 국내 최대 규모가 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포항 AI데이터센터는 포항의 산업다각화는 물론, 전력자립도가 228%에 달하는 경북의 동해안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찾는 AI산업 벨트로 성장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기요금차등제와 입지여건 확충 그리고 정책금융 연결 등 지역의 미래를 바꿀 마중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metroseoul.co.kr

metro

영주시,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

'온라인 판로확대 지원사업' 추진
고령농·소규모 농가 대상으로
전문 마을 MD가 전 과정 지원

영주시가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유통취약농가 지원을 위해 디지털 유통 기반 확대에 나섰다.

영주시는 '차세대 유통리더 온라인 판로확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영주장날 쇼핑몰 내 '마을 MD 기획관'을 운영해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 판매 경험이 부족한 고령농과 소규모 농가 등 유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 마을MD(Merchandiser·유통도우미)가 상품 발굴부터 기획, 홍보,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농산물 생산에는 강점이 있지만 온라인 유통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농가들이 급변하는 소비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사업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은 물론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포장재 개발, 상품화 전략 수립, 온라인 홍보와 프로모션 등 농가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전국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마을 MD가 농가와 긴밀하게 협력해 상품 발굴과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 유통 모델로,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가의 판로 개척과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마을 MD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우수 농특산물 발굴을 확대해 기획관 참여 품목을 늘리는 한편, 지역 농산물의 온라인 유통 경쟁력 강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초여름 녹음 즐기러 경북으로 오세요"

경북문화관광공사, 관광지 3곳 소개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사진으로 만나는 경북 여행' 6월 편으로 초여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경북의 초록빛 관광지 3곳을 선정해 소개했다.

공사가 추천한 관광지는 경주 천년숲정원, 영천 생태공원 메타세쿼이아길, 청도 청도읍성이다. 6월은 짙은 녹음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로, 숲길과 정원을 따라 걸으며 자연 속 휴식을 즐기기 좋은 계절이다.

경주 천년숲정원은 경북 제1호 지방정원으로 남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오랜 기간 산림 연구를 위해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던 곳으로, 울창한 숲과 실개천, 외나무다리, 거울숲 등이 대표적인 볼거리다.

영천 생태공원 메타세쿼이아길은 높게 자란 메타세쿼이아가 산책로를 따라 늘어서 있어 한여름에도 시원한 그늘을 제공한다. 주변 생태공원에는 다양한 수생식물과 들꽃이 어우러져 산책의 즐거움을 더한다.

경주 천년숲정원 산책로.

청도 청도읍성은 성곽과 넓은 잔디밭이 어우러진 풍경이 특징이다. 성벽을 따라 걸으며 청도의 농촌 경관을 감상할 수 있으며, 인근 연지에는 초록빛 연잎이 가득 펼쳐져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6월은 자연이 가장 싱그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라며 "경북의 숲과 성곽길을 걸으며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김진곤 기자

전주단오축제서 진주 '실크등 터널' 선봬

전주시-진주시 문화도시 상생협력

전북 전주시와 경남 진주시가 문화도시 간 상생 협력의 첫 결실로 전주단오축제에서 '실크등 터널'을 선보인다.

전주시는 오는 19~20일 전주덕진공원에서 열리는 '2026 전주단오' 기간 진주시가 제공한 실크등 1000점을 활용한 '진주 실크등 터널'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교류사업의 하나로, 전주의 한지와 진주의 실크 등 양 도시의 대표 문화자원을 상호 홍보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도시는 지난 2월 문화 교류를 제안한 이후 실무 협의를 이어왔으며, 지난 3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사업을 구체화해 왔다.

전주단오축제 '실크등 터널'

실크등 터널은 전주덕진공원 내에 설치되며, 관람객들이 빛의 터널 속을 걷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연출될 예정이다. /전주(전북)=조계철 기자 chonho89@

경북도, 中 베이징·내륙 기업과 협력 확대

'산업협력 포럼·경북 투자 설명회'

경북도가 지난 10일부터 중국을 방문해 오는 17일까지 베이징 권역과 내륙의 칭다오, 베이징, 청두, 충칭을 순회하는 '한중 산업협력 포럼 및 경북 투자 설명회'를 열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투자유치 확대에 나선다.

첫 일정으로 지난 10일 방문한 칭다오에서는 현지 기업인과 투자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과 투자 상담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동행한 계양정밀(경북 미래차 선도기업), 세아메카닉스(전기차 및 자동차·ESS 배터리 부품·TV벽걸이 및 구동메커니즘), 위드시스템(반도체 후공정 테스트용 포고핀 및 소켓 개발·제조) 등 첨단기술 기업들이 참석해 현지 공급망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11일 칭다오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는 경북도와 현지 기업 및 전문 로펌 등 3개 기관이 투자유치 협력 업무협약(MOU)을 했다.

이 자리에는판바오차이 칭다오시 무역촉진회 부회장, 허샤오옌 칭다오시 무역촉진회 처장, 쉐빈 사이촹미래 총재 등 중국 현지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권자들이 참석했다.

13일 베이징 투자설명회에서는 중국 최대 글로벌 로펌 등 6개 기관들과 연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지역 이모저모

산청군
양파 수확철 맞이 인력 지원

산청군이 양파 수확철을 맞아 관내 농가에 대규모 인력을 지원했다.

군은 지난 11~12일 이틀간 양파재배 농가 24곳을 대상으로 '농촌일손돕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군청 공무원과 농협, 산청교육지원청 직원 등 350여 명이 수확 작업에 투입됐다.

양파는 기계화가 어려운 대표적인 밭작물로서,수확 과정에서 뽑기·줄기 절단·건조·선별까지 대부분 사람 손을 거쳐야 해 영농 성수기마다 인력 확보가 농가의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산청군은 이번 일손돕기에서 이 같은 수작업 공정에 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함양군
집배원 활용 '안부살핌 서비스'

함양군이 우체국 집배원의 정기 방문을 활용해 고립 위기가구의 안부를 살피는 사업을 올해 대폭 확대한다.

군은 '2026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 기반을 이어간 것이다. 군은 올해 3월 함양우체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 체계를 갖췄다.

사업 골자는 우체국 집배원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구를 월 2~3회 찾아가 건강 상태와 생활 실태를 점검표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다. /함양(경남)=이도식 기자

부산시-부산경제진흥원
고용우수기업 15곳 선정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기업 15곳을 '2026년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규모별 선정 업체는 ▲종업원 300인 이상(대양전기공업, 카이엠, 워크재활병원, 의료법인 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종업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디알모빌러티, 코웰메디, 로카디, 한선엔지니어링) ▲종업원 100인 미만(뉴라이즌, 싸이트플래닝건축사무소, 대봉기연, 아토무역, 저스트컴퍼니, 앤츠, 로프캠프) 등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북교육청
전몰 학도의용군 행사 성료

경북교육청은 지난 13일 영덕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일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6·25 참전유공자, 보훈가족,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몰 학도의용군 추념식과 호국길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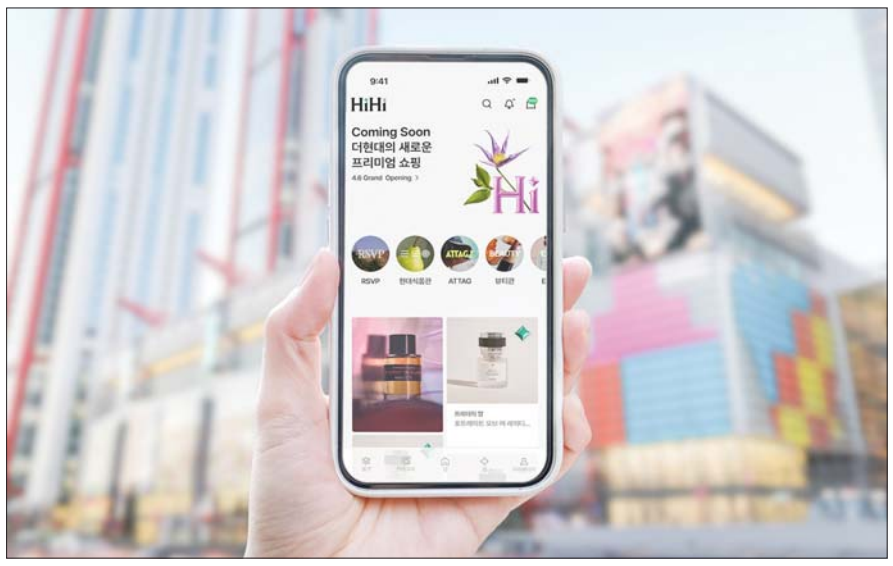
'작은 영웅의 용기에 피어난 오늘'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6·25전쟁 당시 학도의용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나라 사랑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김준한 기자

명품·니치향수 온라인서 산다… 프리미엄 소비 지형 변화

고가 소비층 공략 나선 유통가

롯데百몰, 럭셔리 매출 80% 증가
현대백화점, '더현대 하이' 선봬
신세계인터, 홈 시향 서비스 도입
CJ온스타일, 명품 브랜드 대거 입점



유통업계가 '고급화'와 '취향 중심 큐레이션'을 무기로 온라인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더 현대 하이 콘셉트 사진. /현대백화점그룹

백화점 VIP의 소비가 오프라인 매장을 넘어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다. 명품과 니치 향수, 프리미엄 뷰티 등 취향 기반 고가 소비가 늘어나자 주요 유통기업들은 럭셔리 전문관과 AI 큐레이션, 체험형 서비스를 앞세워 프리미엄 온라인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섰다.

15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주요 유통기업들은 온라인 채널을 단순 판매 플랫폼이 아닌 프리미엄 브랜드와 콘텐츠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재정의하며 고가 소비층 공략에 나서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온라인 플랫폼의 럭셔리 전문몰 전환이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4월 기존 '더현대닷컴'과 '현대식품관 투홈'을 통합한 프리미엄 큐레이션 전문몰 '더현대 하이(Hi)'를 선보였다. 가격 할인 대신 취향·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강화하고, 3000여 개 브랜드를 엄선해 입점시켰다. 온·오프라인 데이터를 활용한 AI 쇼핑 어시스턴트 '헤이디(HEYDI)'의 맞춤형 큐레이션도 제공한다. 오픈 후 2개월간 평균 객단가는 기존 대비 41% 높은 24만2000원을 기록했고, 3040 고객 비중은 71%까지 확대됐다. 온라인몰에서는 3400만 원대 이탈리아 냉장고와 1200만 원대 F1 그랑프리 투어 상품 등이 매출 상위권에 오르며 고가 소비 수요를 입증했다.

다른 백화점 기업들 역시 프리미엄 온라인 전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롯데백화점몰은 올해 1~5월 럭셔리 카테고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으며, 해외 시계 매출은 115% 급증했다. 신세계백화점 또한 SSG닷컴 백화점몰을 통해 프리미엄·럭셔리 카테고리 매출이 73% 늘어났고, 특히 500만 원 이상 고가 상품 매출은 82%나 급증하며 온라인 명품 소비 가속화를 이끌었다.

독창적인 서비스로 이커머스 한계를 극복한 사례도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의 디지털 플랫폼 '신세계V'는 향수 전문관에 '홈 시향 서비스'와 AI 시향 콘텐츠를 도입했다. 배송비만 내면 샘플을 받아볼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오픈 열흘 만에 준비 물량이 매진됐고, 이용자의 64%가 신규 고객이었다. 3040 고객 비중이 72%를 차지한 가운데 딥티크, 로에베, 메종 프란시스 커정 등 니치 향수 판매 호조로 향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 롯데온도 명품 전문관 '럭셔리 쇼룸'에 에트로, 스카로쏘 등 글로벌 브랜드를 입점시키며 월평균 두 자릿수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홈쇼핑 업계도 럭셔리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CJ온스타일은 모바일 앱 내 '럭스뷰티관'을 필품으로 에르메스퍼퓸, 미우미우뷰티, 구찌뷰티 등 이른바 백화점 1층 명품 브랜드를 대거 유치했다. 공식 수입사 파트너십을 통한 신뢰도와 콘텐츠 커머스 역량을 바탕으로 지난해 프리미엄 뷰티 평균 객단가 24만 원을 기록, 주요 온라인 종합 쇼핑몰 중 1인당·1회당 평균 결제금액 1위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시슬리, 끌레드뽀보떼 등의 모바일 라이브 방송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최대 30배까지 폭증했으며, 뷰티 크리에이터와 연계해 단가가 48만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더마 브랜드 르누베르 세럼을 방송 40분 만에 30억 원어치 조기 매진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소비가 오프라인을 단순히 대체하는 단계를 넘어섰다"며 "고객의 취향을 선별해 주는 정교한 큐레이션 역량과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차별화된 경험 제공 여부가 향후 프리미엄 리테일 시장의 패권을 잡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AI 기반 '얼굴 노화 맵' 공개

아모레퍼시픽 연령대별 노화 분석
맞춤형 피부 연구·평가방법 활용 가능

아모레퍼시픽이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얼굴 노화를 규명하며 피부장수 해법을 구현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12일(현지 시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국제 피 부생물물리학 및 영상학회 2026'에서 인공지능 기반 '얼굴 노화 맵'에 대해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얼굴 노화 맵은 한국인 얼굴 노화 시작점과 확산 경로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한국인 연령대별 얼굴 노화를 분석한 것이다. 특히 첨단 영상 기술과 표준화 얼굴 오버레이 기법을 적용했다. 각 얼굴 이미지를 동일 기준으로 정렬하고 부위별 주름과 색소침착 정보를 추출해 하나의 표준화한 얼굴 이미지에 통합했다.

그 결과, 주름과 색소침착은 서로 다른 경로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름은 눈가를 중심으로 시작해 표정 및 구조 변화가 큰 부위로 확산됐다. 색소침착은 볼과 눈 밑에서 먼저 나타난 뒤 얼굴 전반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부위별로 평가했던 노화 진행 양상을 얼굴 전체 관점에서 파악해 준다.

또 동일 연령대 데이터를 평균화해 생성한 표준 이미지를 통해 부위별 노화 진행 순서를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노화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피부 연구 및 평가 방법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R&I센터장 서병휘 최고기술책임자(CTO)는 "향후 피부 변화 예측법을 기반으로 아모레퍼시픽의 홀리스틱 롱제비티 솔루션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컬리, 상반기 인기 뷰티상품 1만개 할인

구매 고객 증정 행사도 마련

컬리는 오는 22일까지 '6월 뷰티컬리페스타'를 열고 상반기 인기 뷰티 상품 1만여 개를 최대 79% 할인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제품을 비롯해 선케어, 헤어, 바디 등 다양한 뷰티 상품을 선보인다.

오는 19일까지는 크리니크 쏙보습크림, SK-II 피테라 풀라인 세트 등 상반기 인기 상품을 대상으로 매일 한 개 상품씩 선착순 5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카드사 할인 쿠폰도 함께 적용 가능하다.

행사에서는 신규 입점 브랜드인 조선미녀와 티르티르 상품도 판매한다. 조선미녀의 '맑은쌀 선크림'과 티르티르의 '마스크 핏 레드 쿠션'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구매 고객을 위한 증정 행사도 마련했다. 조선미녀는 일부 상품 할인과 함께 구매 금액에 따라 추가 증정품을 제공한다. 티르티르는 전 상품 구매 고객에게 마스크팩을 증정하며, 구매 금액별로 파우치와 쇼퍼백을 추가 제공한다.

브랜드별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에스트라는 행사 초반 이틀간 최대 30% 할인 혜택과 함께 단독 구성 상품을 선보인다. 이어 시세이도는 선케어 및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아베다는 행사 후반부에 최대 1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신제품

CU
고도수 RTD 하이볼

CU는 17일 알코올 도수 10도의 RTD(즉석음용) 하이볼 '스트롱볼 레몬캔'을 오는 출시한다.

최근 하이볼 시장이 성장하면서 생과일 하이볼, 보드카 하이볼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는 가운데, 고도수 하이볼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CU에 따르면 하이볼 매출은 2023년 553.7%, 2024년 315.2%, 2025년 190.1%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신제품 스트롱볼 레몬캔은 500㎖ 용량에 알코올 도수 10도를 적용한 RTD 하이볼이다. 캘리포니아산 생레몬 착즙액과 스페인산 유기농 레몬 농축액을 사용했으며, 제로슈거 레시피를 적용했다.

이번 상품은 수제맥주 제조사 세븐브로이와 협업해 개발했다. 세븐브로이는 과거 곰표맥주를 생산한 업체로 알려져 있다.

CU는 스트롱볼 레몬캔 출시를 기념해 4캔 구매 시 1만1000원에 판매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김서현 기자

hy·팔도, BTS 협업 브랜드 '아리' 선봬

미국서 성공적 출시 후 국내 판매

hy와 팔도가 그룹 BTS와 함께 기획한 식음료 브랜드 '아리(ARIH)'가 국내외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

아리는 지난 4월 미국 유통업체 Walmart를 통해 해외 시장에 먼저 출시됐으며, 이달 1일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아리는 '모던 밸런스 푸드(Modern Balance Food)'를 콘셉트로 한 브랜드로, 맛과 건강의 균형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제품군은 모던 누들, 포스트바이오틱 에너지 드링크, 듀얼 바이오틱 소다 등 총 28종으로 구성됐다.

모던 누들은 파스타와 라면의 특징을 결합한 볶음면 제품이다. 봉골레, 매운 김볶음면, 고추장 버터 등 다양한 맛으로 출시됐다.

hy와 팔도가 그룹 방탄소년단과 함께 기획한 글로벌 브랜드 '아리(ARIH)'. /hy

포스트바이오틱 에너지 드링크는 제로슈거·저칼로리 설계를 적용한 제품으로, 천연 카페인과 타우린, 비타민B군, 포스트바이오틱스 등을 담았다.

/김서현 기자

롯데百, 오감자극 문화 콘텐츠 확대 운영

전시·참여형 프로그램 결합

롯데백화점이 전시와 향기, 웰니스 프로그램을 결합한 몰입형 아트 콘텐츠를 선보이며 여름철 체험형 문화 콘텐츠 강화에 나선다.

롯데백화점은 에비뉴엘 잠실점과 본점 에비뉴엘에서 전시와 참여형 프로그램을 결합한 아트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에비뉴엘 잠실점 6층 아트홀에서는 오는 8월 2일까지 '도심 속 현대인의 감각'을 주제로 한 미디어·회화 전시 '어반 심포니전'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에는 구기정 작가와 구지윤 작가가 참여해 미디어 설치 작품과 추상 회화를 선보인다.

전시 공간에는 향기를 접목한 연출도 마련했다. 글로벌 니치 향수 브랜드 '리버티 뷰티(LBTY)'와 협업해 전시장 전체를 하나의 향으로 구성했으며, 관람객에게는 주요 작품이 담긴 시향지를 제공한다. 롯데갤러리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통해 향수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 에비뉴엘 6층 아트홀에서 모델들이 전시를 구경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6월 25일과 7월 9일에는 전문 도슨트의 해설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는 '어반 나잇 도슨트'를 진행한다. 전시 관람 후에는 참여자 간 교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6월 26일과 7월 10일에는 국제 공인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참여하는 '아로마 요가 클래스'를 운영한다. 전시 공간에서 향기와 요가를 결합한 웰니스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김서현 기자

휴젤
웰라쥬 크림라인 추가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이 기초 스킨케어 제품군을 강화하며 '메디컬 뷰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휴젤은 클리니컬 코스메틱 브랜드 웰라쥬에서 신제품 '글로우 플럼핑 캡슐 크림'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하이퍼 PDRN' 제품군의 앰플, 캡슐에 이어 크림을 선보이게 됐다.

이번 제품은 순도 100%의 히알루론산, 순도 99% PDRN, 초저분자 히알水 젤크림 등 세 가지 제형과 성분을 함유한다. 피부 보습, 탄력, 광채를 동시에 관리하는 기능을 갖췄다. 인체적용시험에서 해당 제품 사용 직후, 피부 플럼핑 개선 효과 39.14%, 속수분 개선 효과 3.66% 등이 확인됐다.

/이청하 기자

HLB, 일본서 연이은 성과… 신약·CDMO 사업 동시 공략

일본 알레르기 치료제 개발 추진
기능성 펩타이드 기업과 업무협약
미국 의존도 낮추고 포폴 다변화

ChatGPT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HLB그룹이 일본 시장으로 보폭을 넓히며 글로벌 성과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에 집중해 온 해외 진출 전략을 일본으로 확장해 현지 맞춤형 파이프라인 가동과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5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HLB그룹 내 핵심 회사인 HLB는 일본 면역질환 시장을 정조준하며 캐시카우 확보에 나서고 있다.

HLB 미국 자회사 이뮤노믹 테라퓨틱스는 지난 11일(현지 시간)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서 'ITI-9001'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이 물질은 일본삼나무 꽃가루 알레르기 치료 백신 후보물질이다.

해당 임상은 일본 현지에서 삼나무 꽃가루 알레르기를 앓는 18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하고, 적정 용량을 선정해 위약군과 비교 평가하기 위해 진행된다.

'ITI-9001'은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의 독자 백신 플랫폼 '유나이트'에 자가 증폭 RNA(saRNA) 기술을 결합해 구축한 파이프라인이다. 체내에서 RNA가 스스로 복제돼 기존 mRNA 방식보다 소량만 투여해도 높은 항원 발현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ITI-9001은 일본삼나무 꽃가루 알레르기의 주요 항원 'CryJ2'를 표적해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기전을 갖췄다. 항히스타민제 등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기존 대증 치료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일본삼나무 알레르기는 일본 전체 인구의 약 40%가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률이 지난 1998년 16.2%에서 2019년 38.8%로 급증해 연간 치료 시장 규모는 약 1000억 엔(약 9500억원)에 달한다.

김동건 이뮤노믹 테라퓨틱스 대표는 "이번 PMDA 승인을 계기로 ITI-9001 임상에 착수하는 동시에 독자 플랫폼 유나이트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면역질환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HLB그룹의 일본 영토 확장의 또 다른 축은 그룹 내 펩타이드 소재 및 신약개발 전문 계열사인 'HLB펩'이 이끌고 있다. HLB펩은 올해 들어 일본 첨단 바이오 기업들과의 잇달아 파트너십을 맺으며 현지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HLB펩은 지난달 일본의 기능성 펩타이드 전문 기업인 '펩티그로스'와 첨단 기능성 펩타이드 개발 및 제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펩티그로스는 재생의료 시장에서 기존 재조합 단백질 기반 성장 인자의 한계를 극복한 합성 펩타이드 솔루션으로 주목받는 기업이다.

양사는 구조가 복잡해 제조 난이도가 높은 고복잡성 펩타이드의 공정 최적화, 대량 생산, 글로벌 공급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HLB펩의 정밀 펩타이드 제조 기술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디딤돌을 놓은 셈이다.

이와 함께 일본이 보유한 세포치료제 및 재생치료 부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인다. 일본 세포치료 전문기업 '리프로셀'과 협력해 환자 맞춤형 항원 표적 펩타이드 원료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상 세포 손상 없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맞춤형 치료제의 핵심 소재를 HLB펩이 자체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갖춘 시설에서 위탁생산하게 된 것이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규제를 충족하며 생산 역량을 입증한다는 목표다.

HLB그룹의 이러한 전방위적 일본 행보는 미국 중심의 신약 성과 외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리스크를 분산한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오는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HLB그룹의 간암 신약 후보물질 '리보세라닙'에 대한 허가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허가 발표는 리보세라닙의 세 번째 미국 시장 도전으로 2023년 첫 도전 이후 장기화된 프로젝트다.

HLB그룹 측은 "일본에서의 연이은 성과를 계기로 일본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을 지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SK플라즈마, 튀르키예 혈액제제 공장 착공

혈장분획제제 자급화 프로젝트
2030년 상업생산 목표

안재현 SK케미칼 사장(왼쪽)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오른쪽)과 11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대통령궁에서 열린 SK플라즈마 튀르키예 혈장분획제제 공장 착공식 행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SK플라즈마는 튀르키예 앙카라 추부크(Cubuk) 공장 부지에서 혈장분획제제 공장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K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튀르키예에 필수의약품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자급화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11월 SK플라즈마와 튀르키예 적신월사가 체결한 혈장분획제제 플랜트 건설 및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간 계약'에 따른 것으로, 양사가 설립한 합작법인 프로투르크(Protur k)는 약 3만6000㎡, 연간 혈장 처리 규모 60만리터의 생산시설을 건설한다.

이 시설에서는 알부민(ABM), 면역글로불린(IVIG), 혈액응고인자 8인자제제(FVIII) 등이 생산될 예정이며, 2028년 하반기 완공과 2030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장이 완공되면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던 혈장분획제제의 공급 안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혈장분획제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으로, 중증질환 치료에 사용되며 대체가 어려운 의약품이다. SK플라즈마는 프로투르크의 주요 주주이자 기술 파트너로서 혈장분획 핵심 기술을 이전하고 생산시설 구축, 품질관리, 현지 인력 교육과 상업생산 준비를 지원한다. 기술료를 수취하는 동시에 지분 15%를 기반으로 합작법인 경영에도 참여한다. 또 상업생산 이전까지 튀르키예 현지 혈장을 안동공장에서 분획해 완제품으로 공급하는 위탁생산(CMO) 프로젝트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셀트리온, 베트남서 트룩시마·베그젤마 출시

판매 제품군 4종으로 확대

셀트리온 '베그젤마'

셀트리온이 지난 9일(현지 시간) 아세안(ASEAN) 지역 대표 국가인 베트남에서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와 전이성 직결장암 및 유방암 치료제 '베그젤마'를 출시하며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두 제품은 올해 3월 판매 허가를 획득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공급이 이뤄지며 시장 조기 진입에 성공했다.

셀트리온은 베트남에서 지난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와 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 '허쥬마'를 출시한데 이어, 이번에 항암제 2종도 추가로 출시해 판매 제품군을 4종으로 확대했다.

셀트리온 베트남 법인은 같은 항암 계열인 허쥬마를 판매하며 구축한 병원 네트워크 및 입찰 경험을 적극 활용해 신규 출시 제품의 공급망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셀트리온 베트남 법인은 허쥬마 출시 이후 현지 48개 주요 병원에서 개최된 트라스투주맙 입찰 가운데 25개를 따내는데 성공하며 직판 역량을 입증했다.

베트남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도 셀트리온의 판매 성과는 뚜렷하게 확인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대표 제품인 램시마의 경우 싱가포르에서 96%의 압도적 점유율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태국(77%), 말레이시아(59%)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항암제 분야에서도 허쥬마는 태국에서 82% 점유율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홍콩과 말레이시아에서도 각각 64%, 53%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삼바로직스, 14년 연속 바이오 USA 참가

글로벌 톱티어 CDMO 역량 공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2~25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샌디에이고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2026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에 참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박람회로 미국 바이오협회가 주관해 매년 6월 미국 내 주요 바이오클러스터에서 개최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창사 이래 14년 연속으로 참가하고 있다. 현장에서 단독 부스를 마련해 글로벌 톱티어 수준의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을 알리며 수주 활동을 펼친다.

우선 초대형 LED 벽을 설치해 방문객들의 관심을 한 눈에 사로잡는다. 양방향 터치 스크린 등을 통해 위탁연구(CRO)·위탁개발(CDO)·위탁생산(CMO)를 아우르는 CRDMO 기반의 바이오의약품 전반에 걸친 엔드 투 엔드 서비스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또 미국 현지 생산 기지인 록빌 캠퍼스를 비롯한 확장된 생산 능력을 소개한다.

행사 중에는 다양한 발표 무대에도 선다. 행사 2일차인 23일 오후 제임스 최 영업지원담당(부사장)이 '한국의 부상: 아시아의 새로운 혁신 중심지에 주목하라'를 주제로 한 세션에 패널로 참석한다. 제프 메이슨 미주 영업담당(상무)은 현장 대담을 진행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생산 역량을 글로벌 고객사와 공유한다.

'2026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내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부스 조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청하 기자

시그닉, 눈가 전용 스킨케어 라인 확대

애경산업, 아이크림 3종 선봬

애경산업은 국내와 미국 시장에서 스킨케어 브랜드 '시그닉'에서 눈가 전용 제품을 새롭게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눈가 피부에 대한 고민을 집중 관리하는 데 쓰인다. 건조함 및 붓기를 위한 'PDRN 하이드레이팅 아이 크림', 눈밑 꺼짐과 주름에 사용하는 '펩타이드 리프팅 아이 크림', 칙칙함과 잡티를 개선하는 '비타 브라이트닝 아이 크림' 등 3종으로 구성됐다.

PDRN 하이드레이팅 아이 크림은 고밀도 수분 제형에 피부 장벽 보습 성분인 클로렐라 유래 비건 PDRN, 7종 히알루론산 등을 담았다. 펩타이드 리프팅 아이 크림은 피부 탄력을 채워주는 인체 유사 플럼핑 펩타이드, 진저 펩타이드, 레틴알 성분 등을 함유한다.

비타 브라이트닝 아이 크림은 젤 크림 제형에 비타민 캡슐을 처방했다. 비타민C 유도체, 비타민B3, 비타민E, 글루타티온 등이 피부 톤에 광채를 더해준다.

해당 제품들에는 모두 시그닉이 독자 구축한 '딥포좀' 기술을 집약해 유효 성분 전달력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

K푸드, 세계인의 먹거리

글로벌 시장의 확장과 현지화 전략

2026년 6월 17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

주 제 K푸드, 세계인의 먹거리: 글로벌 시장의 확장과 현지화 전략

일 시 2026년 6월 17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후 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록 사전 등록시 무료(100명 선착순, 현장등록 11만원)

문 의 2026 푸드이노베이션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푸짐한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 ~ 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 ~ 14:10	〈축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강연	14:10 ~ 14:40	**유재형**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장 :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
	14:40 ~ 15:10	**박수영**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사무관 : 2026 수산식품 수출전략
	15:10 ~ 15:40	**정찬기** 대상 글로벌김치마케팅팀장 : 종가, 식품업계의 하이닉스를 꿈꾸다
	15:40 ~ 16:10	**윤명랑** 풀무원 글로벌마케팅 총괄본부장 : 글로벌 K-Food 트렌드와 지속가능 식품의 미래
	16:10 ~ 16:40	**안병익** 식신 대표 : 식신 AI 데이터로 본 외국인이 찾는 k푸드
	16:40 ~ 17:00	**연윤열** (사)인천푸드테크협회 사무총장 : AI와 푸드테크가 만드는 K-푸드 2.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metro metro경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혁신신약 개발 협력 모색

정부의 제약·바이오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과 국내 산업계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관 협력에 뜻을 모았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15일 서울스퀘어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국산 혁신신약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신한금융, '그냥드림' 사업 지원 봉사활동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2일 서울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 '그냥드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보건복지부가 신한금융그룹,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사랑의열매와 함께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이들에게 조건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급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이다. /신한금융그룹

iM사회공헌재단, 대구FC와 후원품 전달

iM금융그룹 iM사회공헌재단은 대구FC 선수단과 함께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후원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2일 대구 북구에 소재한 가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한 이번 사업은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iM사회공헌재단에서 후원하는 '대구FC 골 누적 기부금'을 활용해 기획됐다. 이번 사업에는 지역 스포츠 구단 대구FC도 함께했다. /iM사회공헌재단

기정원, 제조기업 AX 전환 지원 나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AX지원센터는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6년 AX코칭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정원 AX코칭단은 제조데이터와 AI 분석 경험을 보유한 제조혁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 인력으로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AI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전략 수립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출범했다. /기정원

인 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진주지청장 이강욱

◆**외교부** △운영지원담당관 홍인영 △재외국민보호과장 장동율

부 음 ▲ 홍은정씨 별세, 신하순(서울대 동양화과 교수)씨 부인상, 강정화(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씨 자녀상, 신수지·신수환씨 모친상 = 13일 오전 10시 4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6일 오후 1시 30분. 02-2072-2020

GS, 정부와 청년 AI 실무인재 양성… 120명 현장교육

52g 리부트 캠프 7월 가동
서울·여수서 520시간 과정
생성형 AI·디자인씽킹 실습

GS그룹이 정부 인재 양성 사업과 연계해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실무형 청년 인재 육성에 나선다.

GS는 청년 교육 프로그램 '52g 리부트 캠프'를 오는 7월부터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52g 리부트 캠프는 취업 준비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습 중심 교육 프로그램이다. 서울과 여수에서 총 120명을 선발해 520시간의 교육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GS그룹 혁신 커뮤니티인 '52g'와 기업교육 전문기관 캐럿글로벌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운영한다. 52g는 GS그룹 해커톤과 230건 이상의 현장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쌓은 경험과 인프라를 교육 과정에 반영한다.

GS 임직원들이 지난해 9월 8~9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4회 GS그룹 해커톤'에 참가하고 있다. /GS그룹

교육 과정은 디자인씽킹, 생성형 AI 활용 실습, 실무자 멘토링, 산업현장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AI 도구 활용과 문제 정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설계 등을 단계별로 경험하며 실제 프로젝트 결과물을 만들게 된다.

GS는 자체 AI 플랫폼 '미소(MISO)'를 활용한 실습 환경도 제공한다. 참가자들이 직접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며 산업 현장에서 AI를 적용하는 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캐럿글로벌은 교육과정 설계와 학습 운영을 맡는다.

GS는 교육 종료 이후에도 포트폴리오 보완과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취업 준비와 사회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52g 리부트 캠프 참가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진행된다.

GS 관계자는 "AI 기술이 전 산업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AI 활용 역량과 문제 해결 경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GS는 현장 중심 AX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현대차, 전기차 구독·체험 마케팅 강화

360일 플랜에 EV 4종 투입
아이오닉 5 N 월 30만원 할인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브랜드 경험과 할인 프로모션 등을 통한 고객 마케팅에 힘을 싣고 있다.

현대차는 차량 구독 서비스 '현대 제네시스 셀렉션'에 장기 전기차 이용 상품인 '360일 플랜'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360 플랜'은 위약금과 약정기간, 선납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존 30일 단기 구독 대비 할인된 요금을 적용한 상품이다.

대상 차종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5 N 등 4종이다. 일반 렌터카에서 접하기 어려운 풀옵션급 고사양 차량으로 마련했다.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는 360일 플랜 이용 시 30일 구독 대비 최대 월 14만원, 코나 일렉트릭은 최대 월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은 월 30만원 할인 혜택이 적용돼 월 139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 현대차는 전기차 기술력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13일 전기차 동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EV'er-land 2026'을 개최했다. 전기차 동호회 회원 200명을 비롯해 가족과 지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현대·제네시스 전기차 14종의 시승 프로그램과 체험 이벤트를 경험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13일 전기차 동호회 회원을 대상을 진행한 EV'er-land 2026에 마련된 아이오닉존.

행사장에서는 아이오닉 전기차의 V2L(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과 레이싱 시뮬레이터 등 고객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됐다.

/양성운 기자 ysw@

농촌 빈집, 지역소멸 해법으로 띄운다

송미령 장관, 경북 영양 현장 방문

정부는 소멸위기에 처한 전국 각지의 농촌을 살리기 위한 방책으로, 기본소득 지급에 더해 빈집 재생을 제시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5일 경북 영양의 한 모범 지역을 찾은 자리에서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빈집 방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의 생존이 걸린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양 연당리 마을에서 귀촌인의 집과 외국인근로자 숙소, 한옥게스트하우스, 한옥카페 등을 둘러봤다. 이곳은 빈집정비 정책을 통해 최근 활기를 되찾고 있다.

연당리 마을의 빈집 아홉 동은 문화·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연간 2만5000여 명이 방문하는 빈집재생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 중 한옥카페 '연당림'의 경우 귀촌청년 창업자가 빈집을 리모델링한 곳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 메뉴를 개발하고 마을음악회 등의 문화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2024년도에 1억5000만 원의 연매출 실적을 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 장관은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기본소득 등 농촌정책이 영양군을 비롯한 소멸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신세계, 임직원 대상 역사인식 교육 실시

스타벅스 매장 22일 조기 종료

신세계그룹은 이마트부문 계열사 임원과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 및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1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세계그룹 사내연수원인 신세계남산에서 진행된다.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직원과 이마트 등 이마트부문 계열사 임원들이 참석해 역사 인식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점검할 예정이다.

스타벅스 코리아 매장 파트너들은 오는 22일 교육을 받는다. 이날 전국 매장은 오후 3시에 영업을 종료하고, 점포별로 교육 영상을 시청한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모든 매장의 영업을 일제히 조기 종료하는 것은 1999년 국내 1호점 개점 이후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계열사 대표들과 별도 교육을 받는다. 정 회장은 오는 24일 사장단 회의에 앞서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이마트부문 다른 계열사 직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온라인 이러닝 방식으로 같은 교육을 수강한다. 우선 대상은 본사 근무자와 현장 관리자다.

역사 인식 교육은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가 맡는다. 강연에서는 1950년대 이후 주요 근현대사 사건과 이를 바라보는 관점을 다룬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마케팅 프로세스도 정비한다. 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바탕으로 '사회적 민감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기획 단계부터 역사, 기념일, 정치, 재난, 군사, 젠더, 폭력, 혐오표현 등 사회적 민감 사안을 점검한다.

/김서현 기자 seoh@

동국제약, 건기식 모델에 신혜선 발탁

마이핏 등 뉴트리션 브랜드 강화

동국제약이 건강기능식품 부문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마케팅을 펼친다. 동국제약은 건강기능식품 전속 모델로 배우 신혜선을 새롭게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우 신혜선은 인기 스타로 대중에게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와 건강미를 갖췄다. 특히 동국제약의 뉴트리션 브랜드 '마이핏'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전반의 정체성을 전달하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다.

동국제약은 '내 몸에 딱 맞는 맞춤형 건강설계'에 중점을 두고 마이핏V, 마이핏B, 마이핏S 등으로 마이핏 제품군을 구축해 왔다. 또 동국 국민건강 프로젝트, 고함량 분말형 비타민 엘리나 C플러스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탄탄한 연기력과 폭넓은 캐릭터 소화력을 바탕으로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매김한 신혜선의 철저한 자기관리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동국제약이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의 가치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혜선과 함께 소비자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접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YUHAN 100th Anniversary

PROGRESS 信用標 INTEGRITY
TRADE EST'D 1926 MARK

신뢰의 100년
약속의 100년

신뢰로 쌓아온 100년 위에 책임을 더해,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는 길.
다음 100년을 향한 유한양행의 약속입니다.

유한양행

노란봉투법, 대기업 흔드는 '하청 교섭' 폭탄

윤 휘 종의 잠시 쉼표

노동 시장의 상생과 약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걸고 입안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격적 시행과 동시에 산업 현장을 뒤흔드는 '대기업 하청 교섭 폭탄'이 되고 있다. 법안 통과 당시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우려했던, 대기업 원청을 향한 하청 노조의 연쇄 교섭 요구와 파업 리스크가 단순한 기우가 아닌 엄연한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하청업체 노동조합과 직접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의 결정만으로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되면서, 기업들은 준비되지 않은 다중 교섭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SK하이닉스의 하청업체인 피엔에스로지스 노조 역시 원청을 상대로 성과급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공식적인 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초과 이익분의 일부를 활용해 협력사 직원들에게 1인당 500만~600만 원 상당의 상생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라는 법적 무기를 쥔 하청 노조는 이제 시혜성 장려금이 아닌, 원청의 영업이익과 연동된 정당한 'N% 성과급 분배'를 권리로써 요구하고 나섰다.

대기업의 이익을 직접 나누자는 이들의 요구는 기존 노사 관계 패러다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 10일 시행된 뒤 6월 5일까지 431개 원청이 1137개의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 이들 대부분은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며 중재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법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계 전반이 거대한 교섭 요구의 파도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기업 현장의 노무담당자들은 고충을 토로한다. 하청 노조와의 교섭은 본사 직영 노조와의 협상보다 구조적으로 몇 배나 더 까다롭기 때문이다. 한 원청 기업에 얽힌 하청업체의 수와 노조의 종류가 워낙 다양해, 설령 대표교섭 노조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개별 노조의 파편화된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여기에 하청 노조들이 '성과급 차별 철폐'와 같은 이슈를 전면에 들고 나오면서, 원청 노무팀의 업무는 해법이 없는 '풀기 불가능한 숙제'가 되어버렸다.

이로 인한 인력과 비용의 급증은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갉아먹는 새로운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많은 대기업들이 다발성 노사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끝없는 교섭과 소송 비용, 그리고 교섭 결렬 시 닥쳐올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리스크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 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모든 법과 제도는 지속 가능성과 공동체의 안정을 지향해야 한다. 지금처럼 원·하청 간의 계약 관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법적 불안전성을 야기하는 구조 하에서는 기업도, 하청 노동자도 공멸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혼란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 정의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무분별한 교섭 요구로 인한 경영 마비를 막을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전면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정치부장 yhj@metroseoul.co.kr

모두가 주식을 말할 때

기자 수첩

나 유 리 〈금융부〉

"포모(FOMO·소외 공포) 와서 삼전 탔어."

최근 만난 한 지인은 이렇게 말했다. 평소 주식에 큰 관심이 없던 사람이다. 그런데도 주가가 연일 오르자 결국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했다고 했다. 주위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다는 것이다.

최근 증시 분위기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미·이란 종전 합의 기대감에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던 시장이 반등하면서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9000 시대'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투자자들은 자산 증식의 기회를 얻는다. 침체됐던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것 자체는 경제에도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시장이 뜨거워질수록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기타대출은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이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증시 활황이 투자 수요를 자극한 결과다.

상승장에서는 위험보다 기회가 먼저 보인다. 계좌 수익률이 오르는 동안에는 대출 이자 부담도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조금만 더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감은 투자 판단을 더 낙관적으로 만든다.

문제는 이런 장면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금융시장은 수차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왔다. 시장이 오를 때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등장했지만 조정장이 시작되면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것은 대출을 활용한 투자자들이었다. 수익은 사라져도 빚은 그대로 남는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증시와 실물경제의 온도 차다. 주식시장은 활황이지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자산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아직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투자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자본시장의 성장과 투자 활성화는 경제에 필요한 요소다. 다만 상승장의 열기가 위험에 대한 경계심마저 지워서는 안 된다.

시장에는 늘 기회와 위험이 공존한다. 특히 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는 위험이 잘 보이지 않는다.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냉정함이다. 상승장의 환호 속에서도 한 걸음 물러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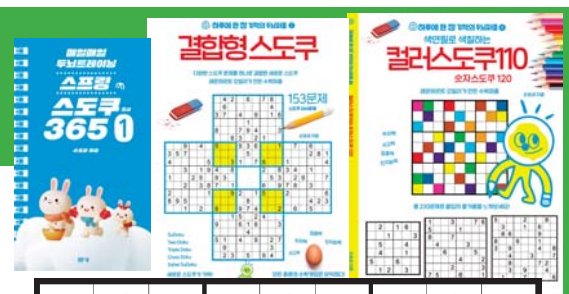
/yul115@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 한 컵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9			8					1
	1	6	4			2	7	
	2	5				8	3	
				1			4	5
			9		2			
1	7			5				
	6	4				3	9	
	3	9			8	4	1	
8					4			2



6	4		7	1			2	8
7							3	
9	2			4		7	8	
						3		5
			8	6	5			
1		9						
	5	7		9			6	3
	3							9
4	9			8	6		5	7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4	7	8	6	3	5	2	1
3	1	6	4	8	5	2	7	9
4	2	5	1	9	7	8	3	6
6	8	2	3	1	9	7	4	5
7	5	8	9	4	2	1	6	3
1	7	3	2	5	6	9	8	4
2	6	4	5	7	1	3	9	8
5	3	9	6	2	8	4	1	7
8	9	1	7	3	4	6	5	2

6	4	3	7	1	9	5	2	8
7	1	8	2	5	4	9	3	6
9	2	5	6	4	3	7	8	1
2	6	4	9	7	8	3	1	5
3	7	1	8	6	5	4	9	2
1	8	9	5	3	2	6	7	4
8	5	7	4	9	1	2	6	3
5	3	6	1	2	7	8	4	9
4	9	2	3	8	6	1	5	7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6일 (음 5월 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강한 자에게 강하게 나갈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60년생** 남을 무시하는 말 등을 내뱉지 마세요. **72년생** 원대한 소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84년생** 여행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9년생 당당하던 기세가 한풀 꺾일 때입니다. **61년생** 근신하며 수양에 힘쓰도록 하세요. **73년생** 남쪽으로 향하세요. **85년생**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대하게 됩니다.

50년생 상대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62년생** 시간이 없다고 서두르지 마세요. **74년생** 실망이 크겠으나 참고 인내하세요. **86년생** 특별한 어려움 없이 원하는 바를 이루겠습니다.

51년생 주위 사람들과 같이하는 일에 이득이 있겠습니다. **63년생** 여행수는 길합니다. **75년생** 적당한 운동을 하여 심신을 단련하세요. **87년생** 내가 가진 모든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52년생 조금 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64년생** 부모님에게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76년생** 직업을 바꾸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88년생** 포기하지말고 기다려 보세요.

53년생 자기의 의지대로 밀고 나가지 못합니다. **65년생** 가정에는 기쁜일이 생겨 행복한 일진입니다. **77년생** 모든 운이 길합니다. **89년생** 작은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54년생 비뇨기 계통의 질병에 유의하세요. **66년생** 생각지 않던 곳에서 희망이 생기고 활기를 찾게 됩니다. **78년생** 출세나 진급수가 보입니다. **90년생** 윗사람의 자문을 받아 실행하세요.

55년생 지혜가 필요한 운입니다. **67년생** 곧은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한 때 입니다. **79년생**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91년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투지를 가지세요.

56년생 곤고함이 따르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68년생** 원대한 꿈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80년생**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92년생** 이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57년생 신념을 가지고 매사를 이끌어 나가세요. **69년생** 혼자 일을 해결하게 됩니다. **81년생** 꾀하는 일마다 마(魔)가 서려 있습니다. **93년생** 헛된 꿈이나 욕망은 삼가하도록 하세요.

58년생 바라는 바가 너무 큰 법입니다. **70년생** 스스로를 위로하세요. **82년생** 상대가 먼저 화해를 요청합니다. **94년생** 연인이나 부부사이의 다툼은 금물, 서로 조금씩 양보하세요.

59년생 생소한 일은 되도록 삼가하세요. **71년생** 사기를 조심하세요. **83년생** 오랫동안 해왔던 고민이 주변사람에 의해 해소됩니다. **95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될 운이 있습니다.

김상회의 四季

아라비안나이트

중동의 강자로 불리는 이란은 우리에게 뉴스에서는 늘 미국과 충돌하고 종교 문제가 복잡한 나라로 묘사된다. 뭔가 복잡하고 낯설어 보이는 이란이지만 천일야화, 즉 아라비안나이트를 떠올리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흔하게 사용하는 알라딘, 알리바바 같은 친숙한 이름은 아라비안나이트에서 나온 것이다. 아라비안나이트는 지혜로운 여인 셰에라자드가 잔혹한 왕에게 매일 밤 이야기를 들려주며 목숨을 부지한다는 설정의 문학작품이다. 이 작품의 설정은 고대 페르시아의 이야기책에서 유래했다. 문화적으로 번성했던 페르시아가 바로 이란의 뿌리다. 이란을 이해하려면 고대 페르시아를 먼저 떠올려야 한다. 수천 년 동안 서아시아 문명을 이끌었던 거대한 제국으로 고대 세계를 대표하는 초강대국 가운데 하나였다.

오늘날의 이란은 물론이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중앙아시아와 인도 북서부까지 지배한 거대한 나라였다.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영토를 지배했던 페르시아는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포용하면서 통치했다. 역사학자들은 페르시아를 고대 행정국가의 원형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거대한 도로망,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 제도, 우편 체계 같은 행정 시스템은 로마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지금의 이란은 중동의 강대국이다.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으며 오랜 역사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다.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자원도 이란의 힘이다. 이란은 옛 페르시아의 부흥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역사 속의 강국은 대부분 옛 시대의 명성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한다. 페르시아 제국이 과거에 위대했던 이유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포용하는 넓은 품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란이 찬란했던 옛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의 포용하는 모습을 떠올려야 할지도 모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3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36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서울교육청, 공무원 단체협약 체결 맞춤 복지포인트·특별휴가 늘린다

지방공무원 복지·근무여건 개선
자기개발비 상향, 육아시간 보장
업무부담 완화·민원대응 보호 강화

서울시교육청 용산청사.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의 복지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단체협약이 4년 만에 체결된다. 불필요한 보고문서 축소,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최소화, 악성민원 대응 강화, 복지포인트·특별휴가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와 2026년 공무원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하고, 오는 16일 단체협약 체결식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2년 이후 4년 만에 체결되는 공무원 단체협약이다.

가장 큰 변화는 복지와 처우 개선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맞춤형복지포인트 기본점수 향상과 건강진단비 부여, 자기개발비 상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모범공무원 수당 상향, 민원업무수당 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수당 지급 기준 인상 등은 추진 과제 또는 관계기관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휴가 제도는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휴가 확대를 추진하고, 육아시간 사용 보장과 대체인력 지원을 검토한다. 재량휴업일에 연가와 학습휴가 등 휴가 사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협약에 반영했다.

업무 부담 완화 방안도 구체화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불필요한 보고문서를 폐지하고 보고 요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줄이고, 문서 택배 발송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공무직 급여업무 교육과 변경사항 사전 안내 등 현장 행정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담았다.

학교 현장의 근무환경은 공간과 장비 개선에 무게를 뒀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실과 서고, 시설관리실 등 학교 내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인쇄실 공기청정기 설치와 노후 등사 장비 교체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원 대응 과정에서 지방공무원을 보호하는 장치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악성민원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공적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보상하는 책임보험 운영 확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단체협약 이행 상황과 근무환경 개선 과제를 논의할 정책협의회는 분기별 1회 열린다. 협의회에서는 단체협약 이행 점검과 복지 증진, 고충 해소, 제도 개선 등을 다룬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은 노사 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이주비 대출 LTV 70% 완화 건의

정부에 재개발 규제완화 요청
이주비 대출 LTV40%→70%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

서울시가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주비 대출 LTV를 현행 40%에서 70%로 높이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주비 부족과 낮은 사업성, 복잡한 절차가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10개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의안은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서울시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주비 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LTV 40%가 적용되는데, 이를 70%까지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서울시는 10·16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제한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완화 방안도 포함됐고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제공 비율도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재건축 때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절차 개선안도 담겼다.

서울시가 건의한 10개 과제 가운데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는 금융위원회 소관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 나머지 9개 과제는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개정 사항이다.

시는 지난해 11~12월 서울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실무협의체 논의, 정비사업 추진 주체와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의 사항이 반영되는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고교학점제 안내 다국어로… 6개 언어 배포

서울시교육청, 6개 언어 자막 제공
이주배경학생 증가… 정보접근성⬆

서울시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안내 영상을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등 6개 언어 자막으로 제작해 보급한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과목 선택과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진 만큼, 이주배경학생과 학부모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영상은 한국어를 기본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자막을 제공한다. 영상에는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고등학교 생활 안내, 과목 선택,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점 이수 기준 등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과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인정 기준 변경' 등 최신 내용도 영상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주배경학생은 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전체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이주배경학생은 13.6% 증가했다.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은 같은 기간 22.3% 늘었다. 현재 서울 학생 100명 중 약 3명은 이주배경학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언어 차이로 고교학점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접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은 서울시교육청 공식 유튜브와 서울고교학점제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영상 제작에는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온센터가 번역을 지원했다. 다+온센터는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원스톱 진입 서비스,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 상담, 통·번역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AI 활용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전국 최초 스마트시티 기술 활용
새로운 교통안전교육 모델 구축

고양시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전국 최초의 '스마트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 나선다.

시는 지난 11일 스마트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관리부서인 교통정책과와 운영기관인 고양도시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스마트 어린이 교통공원의 시설 구성과 콘텐츠, 공간 배치, 운영 방향 등 실시설계 결과가 공유됐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시티과가 추진해 온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성과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접목한 것으로, 기존 시청각 중심 교육을 AI 기반 미래형 체험교육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실제 교통환경과 유사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통안전교육 모델 구축에 나섰다.

스마트 어린이 교통공원은 AI 기반 실감형 교육 콘텐츠를 새롭게 도입해 현장감 있는 체험교육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시설은 ▲AI 보행자 면허관 ▲AI 보행 안전관 ▲차량 탑승 안전관 ▲두바퀴 체험존 등으로 구성된다.

고양시는 앞으로 실시설계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교통안전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경과원, 지역산업인력양성 2년 연속 최우수

지난해 815명 배출… 목표 163% 달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운영하는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S) 등급을 획득했다.

경과원이 운영하는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은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 수요에 기반한 전문기술 교육과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성과평가는 전국 65개 공동훈련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훈련실적 달성률과 수료율, 참여율, 만족도 등 정량지표와 과정 운영, 자체 점검, 사업관리 체계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뤄졌다.

경과원은 90점 이상 기관에만 부여되는 최우수 S등급을 2년 연속 획득하며 교육 운영 역량과 사업 수행 능력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은 최근 3년간 총 2363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도내 중소기업 인력양성 기반 구축에 기여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815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연간 목표 대비 163%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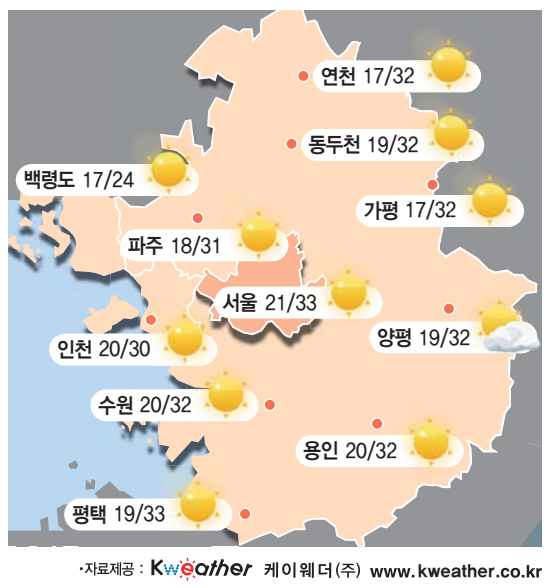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5:10 | 해짐 / 19:55

6월 16일 (火)
음력 : 5월 2일

수도권 날씨
21 ~ 33℃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젠슨 황, 일본 패싱" 닛케이 보도에…"한심하다, 또 잃어버린 30년" 비관
▲트럼프, 김정은과 산책 사진 공유하자…남북경협주 '들썩'
/사진 뉴시스

▲세계문화유산, 러 공격에 화재 발생…우크라 "야만적" 격분
▲이스라엘, 美-이란 합의에 충격·분노…"우리 관점에선 재앙"

▲휴전도 무색했던 美·이란 보복전…종전 뒤 '60일 핵협상' 남았다
▲일본, LNG선 제조 부활 나서…"한국 조선업계에 기술전수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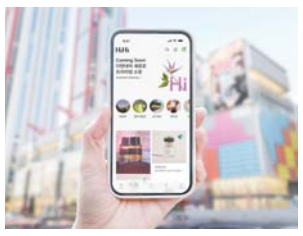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5932호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명품·니치향수
온라인서 산다
프리미엄 소비 변화
L1

HLB
일본서 성과
신약·CDMO 공략
L2

꿈에 날개 달고, 문화에 숨결 더해… 내일의 가치 키우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금융회사의 강점을 활용한 '본업 기반 사회공헌'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단순한 기부나 후원을 넘어 금융이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미래세대의 금융 소외계층이 경제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확대하며 '따뜻한 금융'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신한 어린이 금융체험교실에 참여해 질문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곳곳에 금융업 기반 사회공헌 펼쳐
어린이·청소년 위한 체험형 금융교육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프로그램 마련
진로탐색 돕는 금융권 직업체험교육

문화예술 분야 이끌 미래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등 클래식 유망주 발굴
소외계층 예술인 위한 성장 지원도

문화유산 해설 '오디오가이드' 제공
다국어·수어해설 등 문화향유 기회⬆

◆ 금융교육과 미래세대의 꿈

신한은행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은 금융교육이다. 신한은행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금융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인 '신한 어린이 금융체험교실'은 초등학생들이 금융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신한은행 직원들이 멘토와 창구봉사자로 참여해 어린이들과 함께 통장 발급, 환전, 주식 투자 등 다양한 금융 미션을 수행한다. 학생들은 실제 금융활동과 유사한 체험을 통해 금융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올바른 경제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직업체험교육도 운영한다. 중·고등학생들은 실제 영업점과 유사한 환경에서 은행원과 고객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권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 화상 시스템을 활용한 진로 멘토링도 함께 제공해 진로 탐색 기회를 넓히고 있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지속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도서산간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동점포인 '뱅버드'를 활용한 찾아가는 금융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 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등을 위한 맞춤형 생활금융교육을 실시하며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 클래식 영재 발굴…장애예술인 지원

신한은행은 금융교육뿐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메세나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대표 사업인 '신한음악상'은 국내 클래식 유망주를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금융권 최초로 제정한 시상제도다.

신한음악상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성악 등 클래식 분야 유망주를 발굴해 장학금과 연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 후원에 그치지 않고 차세대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며 국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달 열린 제18회 신한음악상에서는 바이올린과 피아노, 성악 부문에서 총 6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최대 1600만원의 장학금과 신한아트홀 무료 대관 혜택이 제공되며, 세종문화회관 S-클래식 위크(Classic Week)와 하트하트오케스트라 협연 무대 참여 기회도 주어진다.

신한음악상은 현재까지 총 87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역대 수상자들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와 프라하 국제 콩쿠르, 동티보 국제 콩쿠르 등 국내외 주요 무대에서 성과를 거두며 한국 클래식계를 이끌 차세대 음악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예술인 육성뿐 아니라 장애예술인의 사회 참여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금융권 최초로 발달장애인 연주자로 구성된 음악단 '신한 SOL 페스티벌'을 창단했으며, 단원들은 전문 멘토의 지도를 받으며 음악적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지난 11일 개최된 제18회 신한음악상 시상식에서 정상혁 신한은행장(뒷줄 왼쪽 첫번째)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가유산에 스토리텔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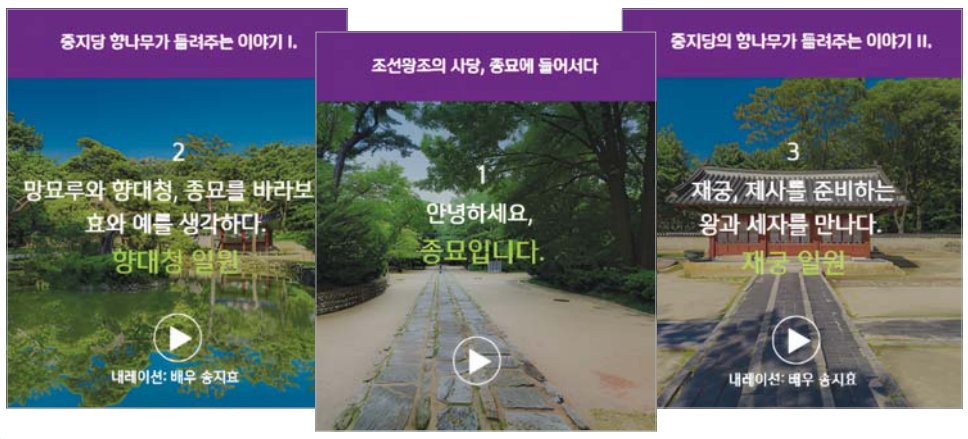
신한은행은 문화예술 인재 육성을 넘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일환으로 국가유산 오디오가이드를 무료 제공하며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힘쓰고 있다.

국가유산 오디오가이드는 관람객들이 문화유산의 역사와 의미를 보다 쉽고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해설 서비스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현장 QR코드 스캔만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 국어와 수어 해설도 지원해 누구나 편리하게 우리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2005년 문화재청과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협약을 맺으며 시작됐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해설 서비스를 통해 관람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역사적 경험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한은행은 2020년 숭례문을 시작으로 덕수궁, 광화문광장, 창덕궁 후원, 종묘 등에 오디오가이드를 제작·지원하며 문화유산 보존과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인천시 국가유산 오디오가이드 사업에도 참여하며 국가유산 보존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금융교육과 문화예술 지원, 문화유산 보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따뜻한 금융'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15일 "스토리텔링을 더한 오디오 가이드가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한 역사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문화유산의 가치를 나누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이 제작·지원 중인 종묘 오디오 가이드.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홍명보호 체코전 승리→토너먼트 진출 확률 92.03%

▲이란 감독·주장 "美 입국 제한, 월드컵 축제 분위기에 찬물"

/사진 뉴시스

▲38개국 245명 작가 품었다…민음사 세계문학전집 500권 돌파

▲국중박, 주차비 또 올린다…'하루 최대 1만8000원 → 3만원'

▲코트디부아르 후반 45분 '극장골'…에콰도르 격파

▲'최하위' 롯데 vs '연패' SSG, 반등 위한 외나무다리 승부